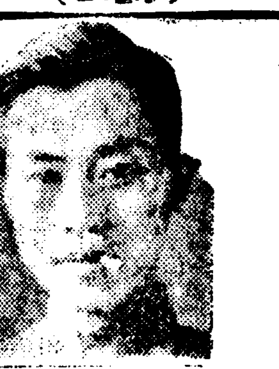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十一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廣東省、徹底的으로 中央化工作開始

軍隊를直屬으로、黨部도改革

蔣氏、陳立夫氏를派遣



【上海發】新廣東省主席 黃慕松氏는 曾養甫 宋子良 陳誠氏等과함께 廣東政府의 大改革을斷行하기 爲하야 協議하고 또 余漢謀氏는 麾下軍隊의 整理改編을 急히하고잇슴으로 近近廣東省은 面目을一新하야 中央의直屬統治下의 新區域으로 更新하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國民黨中央部에서는 廣東省黨部의 徹底的改革을 斷行하기로되엿다 即 六日朝 南京에서 中央常務委員會를 開하고 廣東省及 市黨部를 特派制度로 改正하야 省黨部特派員으로 黃慕松 余漢謀 曾養甫氏等을 任命하고同時에 特히 陳立夫氏를派遣하야 此를指導監督케 하기로 決定하엿다 陳立夫氏는 二三日中에 南京을떠나 廬山에 赴하야 蔣氏와 會見하고 廣東에 赴할터인데 이와 前後하야 藍衣社의 尖銳分子數十名도 廣東에 赴하야 秘密工作에 從事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廣東新政府의 對外政策은 廣東英國間의 從來의 密接한關係及 今回의 事件에依한 民衆의 對日感情惡化를 考慮하야 徹底的으로 排日親英을 基調로 하리라고 觀測된다(寫眞은陳立夫氏)

宇垣前總督退京

在任滿五個年의 長久한時日을 朝鮮에서보낸 宇垣前總督은 貞子夫人 令息 令孃 矢野前秘書官等과함께 十一日午後三時 京城驛發노조미號로 各界多數人士의 送別裡에 離京하야 南下하얏다

對西不干涉協約 蘇政府參加受諾

伊國政府도同意하기로回答

獨逸도原則上無意義

【莫斯科十日發同盟】蘇聯政府는 莫斯科駐箚 佛國代理大使에 對하야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參加할旨를 回答하얏다 回答內容은 다음과갓다

一、西班牙內政不干涉에關한 佛國政府의提案에 對하야는 何等留保를 附치안코 全的으로 受諾하고 軍用機 밋商用機를 包含한 軍需品一切의輸出을 即時禁止할用意가잇다

一、但佛國政府原案에는 協約前文에「締約國은 中立을 維持하기를期約한다」이라고 되어잇는 右前文은 誤解를 招來할念慮가 잇서 蘇聯政府로서는 削除를 希望함

【羅馬十日發同盟】羅馬駐箚佛國大使샴부한氏는 十日夜 치기宮에赴하니 伊太利外相챠노伯과會見하고 西班牙內政不干涉 問題에對하야 協議를遂하엿다 席上에서 챠노伯은 伊太利政府는 佛國政府의 提案에同意한다는旨를 回答하엿다 但細目의諸點에對하여는 兩國의外交機關을 通하야 더욱折衝을進行할豫定이다

【伯林十日發同盟】伯林駐箚佛國大使 프랑소아포세氏는 八日 獨逸外務省을訪問하고 노이라트外相과會見한後 西班牙內政不干涉에對하야 獨逸政府의協力을 要請하엿든바 노이라트外相은 獨逸政府의意向으로 次와如히 述하엿다고傳한다

一、不干涉案에는 原則上 獨逸政府도 異議는 업다

一、不干涉案의 實效를 期하기에는 米國政府의 參加를 必要로 한다고 思惟한다

一、그리고 不干涉을 實施하는 以上 單純히 武器禁止만이 아니라 義捐金 軍資金의 送付援助도 禁止하지 안흐면 안된다

不干涉協同案締結 英佛兩國은樂觀

見解相異는中立과不干涉을區別하는것뿐

米國도嚴正中立維持

【仝 十日發同盟】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한 國際政局의 緊迫에對하야 英佛兩國政府는 緊密한 共同戰線을 베프러 干涉共同案締結에 努力하고잇는데關係各國政府의 意向도 大略判明되엿슴으로 倫敦駐箚佛國大使館 칸본參事官은 十日午後 英國外務省 次官補마오시氏를 訪問할 不干涉宣言案案 宣言實施의 具體案에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商用機의 輸出禁止에對하야는英國政府에 法律的手續上에 困難이잇스나 右協議結果 何等 障法을發見하리라고 思惟된다 目下伊太利政府만이 最終的回答을 하지안코 蘇聯 獨逸 和蘭三國政府가 留保乃至 希望 意見을 表明하고잇슴으로 不干涉協約案의前途는 반드시樂觀할수업스나 英、佛兩國政府는 大要左와如한 樂觀的見解를 下하고잇다

一、蘇聯政府는 中立維持를 期待한다는등의 宣言前文의削除를 希望하고잇는데 前文의削除는 그리큰 支障을招來하리라고는 思惟되지안코 더욱英國政府는 當初부터「中立」과「不干涉」을 別하야 叛亂도 交戰關係로 省做하는立場을 固執하고잇다 뭇솔리니首相도 十日山莊에서 羅馬에歸還하엿슴으로 數日中에 何等結末에 到來하리라고觀測된다

一、葡萄牙政府는 領土의保全을 要求하는데 英國政府는 一八一○年의條約及聯盟規約에 基하야 葡萄牙의領土保全은 公約할수잇다

一、米國政府는 恒常 嚴正中立 不干涉을 强調하고잇스므로 協約案에 對하야 即時 參加하리라고 觀測된다

米、歐羅巴艦隊의 復活遂具體化!

西班牙의內亂에備코

【華盛頓十日發同盟】스완슨海軍長官及스탄돌리이作戰部長은 十日午後白堊館에서 루스벨트大統領을 訪問하고 大西洋分遣艦隊의 復活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米國政府는 一九二九年大西洋艦隊의 廢止以來 大西洋上에 獨立한 艦隊를 常置치안코 艦隊은 全力을集中하야 太平洋에 集結하여잇는데 分遣艦隊의復活案이 逐次 具體化하게된것이라고 觀測된다 루스벨트大統領과會見한後 스탄돌리이作戰部長은 記者團과 會見하면서 말하기를 今日大統領과의 會見에잇서 歐洲艦隊를 復活함이 如何하나는 問題가 나와 協議를 遂하엿다 現在西班牙內亂의 影響으로 重大한 事態에 對處하기 爲하야 西班牙沿海에서 待機하고잇다 그리고 艦隊의 出動을 考慮하게된것이다 大西洋에는 이미 必要한 艦隊가 잇서 米國人의 保護에 萬全을 期하고잇다고 말하엿다

遊弋中의英小艇을 西叛軍軍艦砲擊

駐西英大使嚴重抗議

【안데-南佛=十日發同盟】英國人사빌스氏夫妻는 快走艇를루사드號에 搭乘하고 九日前後 北西班牙沿岸을 遊弋中 推進機에 故障을이르켜 히혼港에 寄航하려할지음에 突然 叛軍巡洋艦아드미란데스루메號로부터 砲擊을바덧다 사빌스氏는即死 夫人은 負傷하엿다는 急報를接하고 英國驅逐艦 코메드號를 現場에急行케하야 負傷者를 同艦에收容하엿다

【안데十日發同盟】目下 안데에 滯在中인 마드리드駐箚英國大使 칠론氏는 히혼海港外에서 快走艇에對한 砲擊에 對하야 叛軍側에 嚴重抗議하엿다

國防費大膨張으로 明年度豫算編成難

大軍事費와各省의國策經費等三十億突破

現內閣一大難航未免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은 國策閣議가 中止되엿슴으로 各省의 豫算概算書提出을 待하야 爲先大藏省 主計局에서 嚴密한 檢討를加한後 各其關係省當局과 折衝한다는 從來대로의 編成方針으로 進行하기로되엿는데 一方에잇서서는 各省으로부터 首相及 藏相에게 提出된 國策案이 五十數件에達하고 또 此도 考慮하지안흐면 안되고 또軍部에서는아직 的確한數字를發表하지안코나 國際情勢의現狀에鑑하야 軍備의充實을 急히할必要에서 六個年繼續의 三十億의 國防充實計劃을 提示하엿고 海軍도 또한 無條約下에잇서서 充實計劃을 急히하야 當然히 相當한 要求를 하리라고豫想되는바 陸海軍의 要求는 實로 十四、五億圓을 突破할模樣이며 이에各省의 重要國策遂行의經費 其他의 新規要求等을 加算할時는 明年度豫算의 要求總額은 三十億을 突破하리라고豫想된다 그리고 首相及 藏相이 이膨大한要求를 어느程度로 緩和하야 實現할는지 各方面의注目의焦點인데 明年度豫算의大半을 占有할것은 明年度國防費로써 國際情勢의 逼迫과 對滿國策遂行見地에서 軍事豫算의 膨脹하는데對하야 廣田首相 馬場藏相도 諒解하고잇다고 軍部는 主張하고잇스며 政府當局도 國防充實에는 勿論 何等 異論은업스나 財政의 基礎를 破壞하야 豫算에는 각각이 實現하기 어렵다 함으로 今後 具體的 折衝을 開始함에 미처 國防과 財政의 調和를 中心으로 相當히 議論이 紛糾되리라고 豫想되여 事態의 推移如何에 依해서는 內閣의 運命에 關한 重大結果를 生할는지도 알수업슴으로 明年度豫算編成은 一大難航을 豫想치안흐면 안된다

國策決定時期

藏相의方針承認

【東京電話同盟】十一日閣議에서 政府는 重要國策決定을 各省豫算概算書의提出完了를待하야 行하기로 正式決定하엿다 同日閣議에잇서서는 平生文相 馬場藏相 其他二、三閣僚로부터「重要國策項目決定은 何時에되는가」하는質問이잇고 이에對하야 馬場藏相으로부터 重要國策은 歲入計劃에 비추어 考慮하지안흐면 안될問題임으로 各省에서 作成한 具體案도잇슴으로 只今即時 最後的決定을 나릴수는업다 따라 國策決定은 八月下旬乃至 九月上旬까지에 歲入計劃에 비추어 豫想을세우는것이 妥當하다고 述하고 이에關聯하야 小川商相、島田農相으로부터 積極的으로 贊成意見을 述하고 全閣僚는 馬場藏相의 方針을承認함을 協議하엿다

定例閣議經過

【東京電話同盟】十一日定例閣議는 午前九時二十分 首相官邸에서 開催되엿는데 廣田首相以下 各閣僚가(永田拓相旅行缺)出席하야 먼저 豫算概算書提出에關하야 馬場藏相으로부터 各省의 豫算概算書는 十日까지에 提出될豫定이엿스나 同日까지에 提出된것은 外務、司法、遞信 三省뿐이엿다 可及的速히 殘餘各省에서도 提出하기를바란다 寺內陸相 永野海相은 陸海軍의 豫算概算書는 一週間內에 提出할수잇다는 旨를述하야 諒解를求하고 有田外相은 墺太利、印度 西班牙 其他歐洲最近의 政局一般으로報告하고 同十一時散會하엿다

公債課稅問題 大藏省愼重考慮

【東京電話同盟】公債에對한 課稅問題는 一般的 稅制整理問題와함께 大藏省에서 愼重考慮中인데 問題된 公債에對한 課稅는 現行資本利子稅以外에 所得稅를 賦課하게될것가터 第三種所得稅가 第二種所得稅와 綜合되는結果 高率課稅되면 發行은 累進的으로 增大하는 結果를 生할것으로 今後公債增發을 압두고 公債消化力의前途와 關聯하야 其推移는 關係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金融界方面에서는 이미多額의公債를所有하고잇고 國家가 發行하는 公債에對하야 課稅함과如한것은 其矛盾도 甚하다하야 強硬히反對意見을 表明하엿다 即右課稅問題가 實現하자 議會에서부터 反對意向이 表面化되어 其後各關係方面의 反對立場을 고 當局을 大藏省當局으로서는 何等의形式으로 公債消化에對한 對策을 갓고잇스면서 金融界方面에서는 意見이 擡頭하는此際인만큼 生한 微妙한諸點을 愼重考慮하고 關係方面의 意向을 充分打診하야 萬全의對策을 考究하기로되엿는데 何如튼 公債消化의 前途가 懸念되여잇는此際 課稅問題의 推移는 關係方面의注目을 끌고잇다

에土兵襲擊으로 伊兵三百名戰死

【아디스아베바十日發同盟】아디스아베바報道에依하면 當地西方六十哩의地點에 駐在하는 伊太利軍은 十日午前에디오피아土兵의 襲擊을바다 激戰數時間後 겨우 擊退하얏는데 右戰鬪에서 伊太利兵三百名은 戰死하엿다한다

貴族院制度改革의 調査會設置에異論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貴族院制度改革에 關하야 調査局으로 하여금 革案을 調査立案케하고 잇는데 이問題를 中心으로 近衛議長等은 調査會의 必要가업다는 異議에對하야 研究會等에서는 調査會를 設하야 具體案을作成할것이라는 意見도잇슴으로 廣田首相으로서는 貴族院改革에對하야 貴族院의 協贊을엇지안흐면 안될것임으로 될수잇는대로 貴族院各派의 諒解를어더주는必要가 잇슴으로 調査局原案을 作成하야 貴族院改革調査會를 設하고 이에諸派의 意向이조라는見解를 가지고잇슴으로 調査局原案이 完成되는 기다려學者官吏 貴族院議員等을 委員으로한調査會를 設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鮮滿拓殖設立 委員會開催

創立員附議事項을決定

創立을 目前에 압두고 鮮滿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會는 十一日午前九時半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催하고今井田委員長以下 矢島農林 林財務 田中警務局長 上瀧審議室首席事務官 三浦朝鮮軍參謀 高尾外事課事務官 大野拓務省東亞課長 鈴木關東軍三等主計正 森重滿洲國民政部拓務司長 山崎滿鐵理事 佐方東拓理事 有賀殖銀頭取 加藤朝銀總裁 渡邊、賀田、閔大植 河駿鎬、韓相龍、朴榮喆、各委員(相川外事課長等八委員欠席) 同社總裁로 指目되여잇는 二宮治重中將도 陪席하야 劈頭今井田委員長으로부터 設立準備經過를 報告하고 인사가잇슨다음

一、委員會事務規程制定의件
二、趣意書、目論見書決定의件
三、定款의決定及認可申請의件
四、創立費豫算決定의件
五、設立方法及 時期에關한件
六、株式配定의件
七、株金拂込時期決定의件
八、其他會社設立에關하야 必要한事項에對하야愼重審議를遂하고 各其具體的事項을 決定하고 來三十一日 創立總會에 至하기까지의準備를 完了하엿다

鮮滿拓殖會社總裁 二宮中將으로決定

鮮滿拓殖會社創立委員會는 十一日午前九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開催되야 今井田委員長以下委員 二十六名出席으로 總裁에二宮治重中將을 推薦키로 決定하야 同委員會에列席한 二宮中將은直時 此를 受諾하얏다

新總督總監의 秘書官決定

總督總監更迭에伴한 矢野 池田兩秘書官辭任에依한 南新總督大野新政務總監의 秘書官은 左와如히決定되엿다

總督秘書官 滿洲國總務廳人事處長 鹽原時三郎氏
總督秘書官 社會局東京地方職業紹介事務局長 天谷健二氏

人事·集會

▲赤木鈴雄氏(朝鮮總督府新任官) 新任人事次來社
▲長尾久吉氏(前航官)退任人事次來社
▲矢野廣鄕氏(京城府土木課技師) 新任人事次十一日來社
▲二宮大佐(新朝鮮憲兵隊司令官) 家族同伴十二日午後二時五十分「노조미」號로着任

八面鋒

◇ 英國은 正히 大戰前夜와 갓다 英國國民은 豫期하라」고 英國陸相이 演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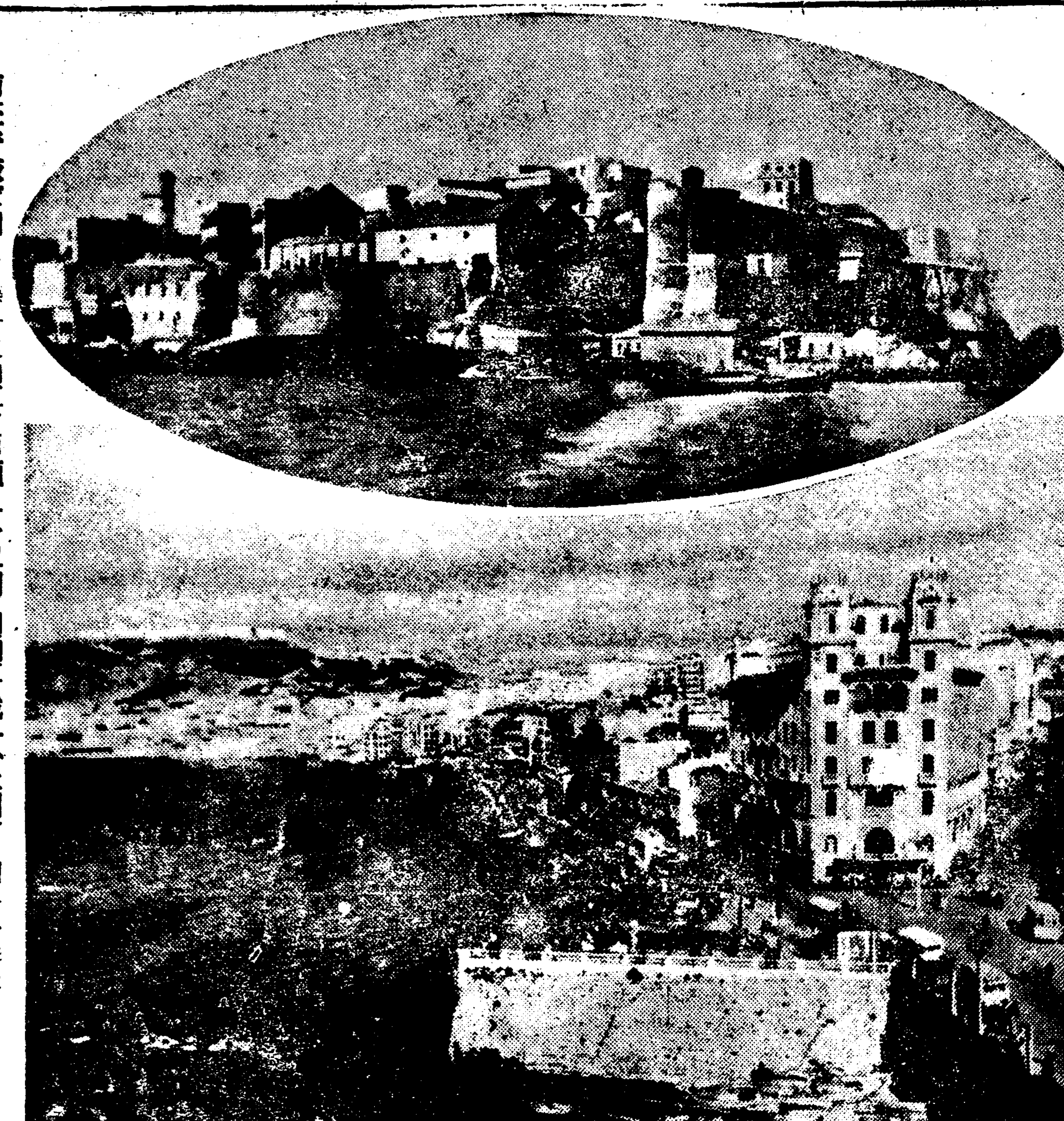
◇ 엇더케 豫期하라는말인가, 戰爭準備를하라는말인가, 平和維持에 힘쓰라는말인가.

◇ 佛國下院이 四八八票對一票로 婦人參政權案을 可決.

◇ 反對者一人도 贊成하라고할것을 니저버리고 反對라고 쓰지나 아니햇나 疑心되는일.

◇ 國策決定의 遷延으로 財界에 不安이 增大되어간다고.

◇ 「國策樹立은 廣田內閣의 正體를 暴露한 廣田內閣의 解消가 庶政一新의 第一步」라고 前川中將이 말햇다。



西班牙叛軍이 占據하고잇는 西領모록코의 멜릴라城과(上圖) 세우타港(下圖)

好子水白粉

嶄新的 設備의 현대적 最良품

우리가타고난美를完全히나러내고더욱美麗하게하야、우리의雅麗한살결에꼭마저서온근한淡化粧用으로無二의現代的水白粉입니다。

三好京白粉 三好코-르드 三好練白粉 三好化粧水 三好香油 三好固煉白粉 三好香水 三好포마-드 三好頰紅 三好口紅 마리아石鹼 一石鹼 林石鹼

京城府明治町二丁目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一七二七番

ランラン 洋髮香油
란

福岡テント商會
釜山府南濱町一丁目 電話二一六九

近代的防火器出現 各方面絕對歡迎

恐怖의火焰의魔手! 我國一個年間의火災로因하야밧는損害는人畜에及한것은勿論 實로二億圓의莫大한數字를보이엿고恐怖의火焰으로써사람들에게戰慄을이르키고잇스나이직優秀한器具가發明되지못하야서더욱더욱悲慘한事를하고잇는바火焰의魔手에게가이업시도오는것을빼아서버리고잇는此際에『防火報國』의信念에向하야晝夜硏究에沒頭한結果其成果로써近來的機能을完備한防火器가이世上에나왓다 나마러다 即『失火自動信號器』란것이것이다 『失火自動信號器』 는簡單하며體裁가優美하며어느場所에라도 掛하고잇는同時에火災以 火에는同時에(出火後十秒)신호를發하야사람들에게『스와火事』를報知하며瞬間에防止할수잇는近代的防火器로써充分한機能을完備하고잇슴니다 如斯히『化學日本』이 낡은 大衆에게 이防火器야말노 官公署、學校會社、銀行、工場病院『비루』『때파-트』『카페』旅館、料理屋、貸座敷、神社佛閣、各家庭其他事務所等모든場所에不可缺할日用品이라고해도過言이아닙니다 이防火器에對하야 既而實驗濟인各警察署、各消防組及日本發明協會에서는雙手를들어推薦하고잇슴니다。일노말미아마防火報國에大貢獻을하기爲하야日の丸工業社의鮮滿支總代理店을釜山府富平町四、三和商事社及京城驛前에三和商事京城支社가大大的으로活動하고잇슴니다

國產眞石玉眼鏡 (實驗證明書添付)
경안들
剛明堂本店 磨玉部
眞石玉眼鏡을求하시라면必히信用잇고歷史깁흔剛明堂本店磨玉部로
朝鮮慶北慶州邑內 天然眞石玉部直賣 振替釜山一四六九

矢野テント商會

中央館
當る十一日公開(三日間) 中央納凉名畫祭! 階上 階下席廿錢均一
第一回 午前十一時卅分 第二回 午後二時卅分 夜之部 午後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特別提供 高田プロ超特作 男三十前 原作 正木不如 監督 村上德三郎 脚色 牛原虛彥 高田稔 伏見信子 主演
新興キネマ京都豪華版 仇討妻戀投 原作 加戶野恩見 脚色 山內英三 監督 石田民三 月形龍之介 大谷日出夫 森静子 鈴木登子 毛利峰子 大競演
◇次週十四日より◇現代浮れ櫻時代 黑頭巾右鎮
永樂町 電話(本)三五三番

團成社
十一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M·G·M超特作映畫 나의 行狀記 W·S·완다이크 監督 그로포-드 主演 다마라푸랑크파-카 主演
부로드웨이의 코라스걸二百餘名 熱情奏鳴曲
◇P·C·L特作映畫 女優와詩人 宇留木浩、藤原釜足、三遊亭金馬 主演
化映畫

京畿、江原에又豪雨
漢江刻刻增水中
(到處에交通杜絶、自動車線路不通)
警備電話、不通、各地河川汎濫

구일밤부터 쏘다지는 폭우로 말미암아 경기도 강원도일대에는 강물과 냇물이 만히붓고잇는중이다 십일오전에 경기도경찰부에 드려온보고를 보면 경기도리천(利川) 양평(楊平)사이의 경비전화(警備電話)는 고장이 생겨서 통하지못하는중이며 려주(驪州)를 중심으로 리운각지와의 자동차교통은 막혓고 나룻배도 통하지못하며 의정부(議政府)와 경성사이의 자동차길도 아직 불통중이다 경성부내의 수해로는 룡산경찰서(龍山署)관내에 가옥십삼호가 침수되엿스며 기타 여러저긔에 길이 꺼지고파괴되엿것도 상당히 만흔 모양이다 이날오전열한시반 현재의 한강(漢江)으로드러가는욱천(旭川)어구의 수위(水位)는 팔미돌오이며 한강교는륙미돌팔십오이고 려주는오전구시현재로 칠미돌삼십이고 충주(忠州)는 오전일곱시현재로 륙미돌사십칠 이엿다한다 한강상류지방에서도비가만히 온모양이므로 한강인도교근처는 십일일 저녁쯤에는 물이만히 붓게될듯하다한다

市內水害狀況
纛島一部浸水
京軌一部不通
東大門署管內水害

동대문서관내의 수해상황── 십일일정오 뚝섬을 벌서 칠메─라상십부라는 금년에 드려 첫 긔록을 작성하야 시내와 뚝섬방면을 련락하는 중요지점에잇는 살곶지다리(箭串橋)일대는 완연히 물나라가되여 일체교통은 두절되고 간신히 배로서 련락하고잇스나 물살이 세어 이것도 끈난한상태이며 동대문뚝섬간의 경성궤도선(京軌線)은 역시 전곡 전간교 부근에 잇는 철교가 물에잠기어가 오전아홉시 삼십분부터 전선불통이되여 물이줄지안는한 복구(復舊)의 희망이 전혀업서 연선주민의 불편이 막대하며 동대문서관내에서 이때까지 판명된 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敦岩町四七一番地압橋梁三間流失
▲城北町一八六番地압橋梁二間流失
▲敦岩町四九六番地堤防一八〇間
▲城北町一三六番地李鉉泰瓦家一間崩壞
▲城北町一三六番地의一五號韓基換瓦家一間崩壞
▲新江纛島沿岸에잇든茂木九十本流失(十二時記)

청량리(淸凉里)부근 중랑천(中浪川)은 십일일오후 한시반에일미돌칠십으로 증수되여 뚝에짝차서 위험상태에 잇스므로 경계중에 잇스며 그하류부근에는 마루밋까지 물이 든 집이일곱집이나 신설정(新設町)오십오번지압 안암천(安岩川)뚝이 약사십간이나 반치나 문허젓다 오전아홉시에 경성궤도회사의 룡두교(龍頭橋)의 궤도가 세간이나 문어저서 궤도차는 운전하지못하게되엿다 련지정(蓮池町)일백사십이번지 서원석(徐元■)의 집에서는 오전아홉시에 집이반지나 문허젓는데 다행히사람은 상하지안햇다. 동대문밖 동묘(東廟)의 서쪽담이세간이나 문허젓고 창신정(昌信町)상백구십오번지의이호신정식(申正植)소유 신축가옥이네간반이나 문허젓다

寬勳町一部 浸水騷動
‖鍾路署管內‖

십일일 오전열시 현재종로서관내의 수재상황

▽……△

관훈정(寬勳町) 설농탕(雪濃湯)집 대창옥(大昌屋)지정은길로부터 미처빠지지못한 물이 문지방을 넘어쓰러드러오는통에 우육(牛肉)을 저장한곳이 침수되여 종로서 보안계에서는 그고기를사용안토록엄중히내렷다

▽……△

관훈정(寬勳町)일백이번지왕종인(王鍾仁)이가 경영하는중화원(中華園)도침수되엿스며 그부근에부어이 침수된곳은 오호오를 칠수가 이호침수가 삼호나 된다

▽……△

권농정(勸農町)에 상호가 침수되엿스며 종로서 소사실도 침수되엿다

▽……△

봉익정(奉翼町)양회(洋灰)배점아페 개천물이 범람하야일시는대호잡을 이루엇다

西署管內

십일일오전열한시삼십분까지 시내서대문서관내의 수재상황은 다음과갓다

▽……▲

십일일오전 열시십분쯤에 현저정(峴底町)사십오번지의 삼백삼십사호가 어제밤이래의 호우로 축대가 문허저 전긔가옥이 산간이나 파괴되엿는데 다행이 인축의 피해는업섯다

▽……▲

홍제정(弘濟町) 홍제교(弘濟橋)부근의 도로가 약사미돌가량파괴되엿는데 교통상 큰지장이업다고한다

▽……▲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일본내지인의집 이호가 침수되엿다한다

舊永登浦 一部에浸水

이틀동안 계속하야 퍼붓고잇는 폭우로 말미암아 한강물이 작구붓고잇스므로 영등포(永登浦) 경인가도(京仁街道)의 수문(水門)은 막어버렷스므로 안쪽이 채여서 제방부근에 잇는 창화공업회사(昌和工業會社)근처의 주민들집 약삼십호와 구영등포일부의 약사십호는 물에잠겻스므로 영등포수방단 일부가 경계하고잇다 영등포에는 배수설비(排水設備)가 불완전하므로 벌서 이삼년전부터 경기도당국에 대하야 시설을 해달라고 진정해왓스나 이날까지 실현되지 안햇스므로 비가 조곰만오면 물소동을 이르키게되다 그래서 주민들의원망이만타

냇물에溺死

시내 안암정(安岩町)일백팔번지 김수영(金壽永)의 삼녀 정숙(貞淑)이라는 여덟살먹은 아이는 십일일 오전아홉시에 안암천가교(假橋)에서 그외 집 그릇 드디어 내물에떠려저 죽엇는데 아직 시체는 찻지못하엿다한다

氣象特報

【八月十一日午前八時京城測候所發表】 경기도일원은 호우가내리고잇다。 불시에증수할모양인데 이직도 비는일주야를계속한다

鐵道被害
京義、京仁、滿浦各線에小異狀

작금 이삼일래 퍼붓는 호우로 말미아마 십일일 오전에 판명된 철도각선의 피해는다음과갓다한다

(一)……경의선(京義線)수색─금촌(水色─金村)사이에잇는 선로는 십여군데나 물에채여서간간히 뚝이허무러진데가 잇는데 방금 복구공사중에 잇슴으로당일로 개통될듯하다고.

(二)……경인선(京仁線)소사─오류동(素砂─梧柳洞)사이도 한군데가 물에잠기여 파손되엿스나 바로공사를해서 복구되엿다고

(三)……만포선(滿浦線)묘향산─하고(妙香山─何古)사이의 선로도 두어군데 물에잠겨 허무러젓스나 복구공사에 노력한결과 즉시 복구되엿다한다

各地天氣(午前六時現在)

中江鎭曇 江陵雨
新義州曇 大邱曇
平壤曇 釜山曇
仁川曇 下關曇
京城雨 大阪曇
全州曇 東京曇
木浦曇 天津曇
群山曇 靑島雷雨
雄基曇 上海曇
成津曇 新京曇
元山小雨 奉天曇

長期의曇、雨繼續
農作物에影響不少

련일계속하는비가 비록경긔지방을 중심으로 만히 내리엇다고는하나 그동안 각지를 통하여 상당히 비가오고 날이 흐리엇다 팔월상순중의 각지우량을 보면 (以下미리)

▲釜山二〇三 ▲木浦一五三
▲全州九七 ▲大邱一九一
▲仁川一一四 ▲京城一二一
▲江陵一〇九 ▲平壤六二
▲元山九八 ▲新義州一七
▲城津二六 ▲中江鎭六一
▲雄基一九八

으로 례년에비하여 비도만히왓거니와 특히념려되는것은 날이들지안키때문에 농작물은 일조시간(日照時間)이 현저히 부족한것이다 팔월초순경으로말하면 벼(稻)는 한참자라는때인데 날이 흐리기때문에 힘업시키만자라서 불건강상태에 빠지고 가다전작물도 공연히 필요이상으로 키만자랄뿐아니라 이즈음은조(粟)며 기타농작물에 이삭이 패가시작하는것이 만흔때임으로 이삭도 긔운잇게 패지못한다 그래이가티 비오고 흐린날이 계속하는 것은 농작물에 대단히 불리하야 금년농형에는 적지안흔 영향이 잇스리라고추측되여 총독부 농림당국에서도 저윽히념려하고잇다 그러나 아직은 큰흉년이지라라고까지 념려할 정도는 아니라고한다

豪雨는明日까지
颱風이西北으로進行

仁川觀測所發表

【仁川】오늘로서 개일줄알엇든비는 또다시계속하고잇다 이에인천관측소발표에의하면 금번비는경인(京仁)지방을중심으로 호우가나리여 작금량일간에『백미리』이상의호우가나리엿다 금조오전륙시 현재까지 우량은 ▲中江鎭一二『미리』▲新義州一一『미리』▲仁川六〇『미리』▲平壤二〇『미리』▲京城六九『미리』▲全州一二『미리』▲雄基四『미리』▲城津一『미리』▲元山四『미리』▲江陵八『미리』▲大邱一『미리』▲秋風嶺一七『미리』로서 비는연해주(沿海州)근방에 칠백사십사『미리』의 저기압이잇고 일본해(日本海)근방으로부터 산동(山東)반도에잇는 불연속선(不連續線)으로인하야 중부지방을중심으로 명십이일까지 계속하야 호우가나리리라하는데 남양은방의·태풍은 여전히비률빈(比律賓)동부에서 서북으로 진행하는중이라 그추이가 가장주목된다한다

蓬萊町에 四棟倒壞
인명은안전

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이백구십륙번지의 삼십팔호 로재원(盧在元)의 소유 와가두채가 오전열한시에 문허젓다 봉래정사정목 이백구십륙번지의 삼십칠호 오은근(吳殷根)의 와가한채도 문허젓고 봉래정사정목이백구십륙번지의 칠호 윤원재(尹元在)의 초가 두간도문허젓다 모다사람은상하지안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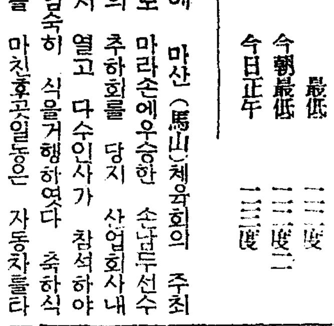
廣壯、纛島에 警官增派
住民들緊張

광장교(廣壯橋)의수위는 오후두시반에는 드듸여팔미돌륙십을보이고 뚝섬에는 팔미돌을 보이고잇섯는데 물은한시간에 삼십센치미돌가량식 작구붓고잇스므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광장리에 경관네명과 뚝섬에세명을증원하여 파송하야 부근을경계하고잇는중이다

水防團警戒中

룡산 한강교수문을 비롯하야 한강연안의 십륙개소의 수문에 경성수방단원과 경성부토목과인부가일제히 출동하야 물이 드려올 넘려가 잇는곳에는 막고 아직 위험치 안흔곳에는 지키고잇다

天氣予報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때때로 비가내리며 明日도가트며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二五度
最低 二三度
今朝最低 二三度二
今日正午 二三度

纛島附近의浸水

"感激"의金品逐至
累計一千五百十圓=十一日午前現在

東亞證券會社 兩君에三百圓

우리『마라손』의 패왕 손긔정、남승룡두군의 『세계올림픽』에서의 위업을 갑축하는의미로 부내황금정(黃金町)에잇는 조준호(趙俊鎬)씨경영인 동아증권회사(東亞證券會社)와 인천(仁川)에잇는 조준호취인점의련명으로 삼백원이라는 큰돈을십일일 량군에게전해달라고 보내와다 (사진은 조준호씨)

劉洪鍾氏 百圓寄託 〔本社寄託〕

홍종(劉洪鍾)씨는 사로부터 현금백원과아울러 다음과가튼 감사장을 본사로 보내와다。

감 사 장

이번 손긔정군의 우승은 조선민족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것을 사실그대로 전세계에주명한것인동시 군의노력에 감격한바잇서 적은정성으로사의를 표하오니 이것을 손군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류홍종씨)

龍山(旭川)水位九米
(十一日午後三時現在)

貴社의國際電話가 戰前意氣를鼓舞
養正安校長本社訪問코 制霸感激談을述懷

『마라손』의 세계제패로 어떤 조선의 의긔를 세계의 면전에 뽐내고 아울러 삼천만민족의거룩한영예를 획득하여 이때에가저온 우리의『스포ー츠·히ー로』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두군의 노력을 치사하는 의미로 각계인사의 금품홍정이 답지하고 잇는중 십일일에는 부내경운정(慶雲町)칠십오번지 조선의패자로서 일약세계의 패자가된 마라손왕손긔정(孫基禎)군을 길러낸 양정고보(養正高普)에서는 교장안종원(安鍾元)씨를 비롯하야동교교무주임서봉훈(徐鳳勳)씨와 서무주임 강용표(康容杓)씨등이우승에대한인사차로십일일오전에 본사를방문하고 본사방사장(方社長)을맛나 기쁨에 넘치는 어조로 번가러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이번 우리손군의 우승은 전혀 일반사회여러분의 성원이것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담 우리도 아프로 나아갈수잇는대로자유만을 속박하지 안는면 비단스포ー츠뿐만이아니라 어느방면으로든지 진취할수잇다는것을 손군으로하여금 여실히 본보기가되든것을 스스로 기뻐함니다 손군이 결전에나아가기바로전날귀사에서 막대한비용을앗기지안코시고 국제전화로 사기를 고취해준것이 무엇보담도 보탐이잇섯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어제밤도 우리가듯고시펏든 손군의우승후감을 국제전화로 누구보다도 신속히듯게해주신것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각지에서는 학교로축전이살도하고잇슴니다

本社를訪한 養正高普安校長(右로부터셋째가 安校長 그엽이本社方社長)

馬山에서는 優勝祝賀會

【馬山支局特電】십일오후네시경에 마산(馬山)체육회의 주최로 마라손에우승한 손남두선수의 축하회를 당지 산업회사내서 열고 다수인사가 참석하야 엄숙히 식을거행하엿다 축하식을 마친후곳일동은 자동차를타고 시중에 달리면서 비라를뿌리고 긔념행렬을 성대히거행하엿다

孫南兩君制覇 市民祝賀會

【鎭南浦支局電話】우리의 자랑 손、남(孫、南)량군의 마라손 세계제패를 축하하기위하야 십일일 당지에서는 진남포체육회、鎭南浦靑年會주최로 전시민총동원으로 축하회、祝賀會를 하기로되엿다 그제일착수로 오후두시까지 전시에 오전매의 축하비라를 배부하고 오후다섯시에는 직산학교(■信學校)뜰에서 시민의 축하식이잇고 그뒤를 이어악대를 선두로 시내를 일주하야 긔행렬(旗行列)을하야 두룡사의 성전(聖殿)에 만강의경의를 표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오전아홉시에는 백린올림픽촌에잇는량군에게 『世界制霸를祝함』 이란축전을 벌서 보내스며또이들 용사를 양성한 륙상왕국양정고보(養正)에는 "孫南兩君의制霸를祝함" 이리는 축전을보내엿다

羅州靑年들도 祝電과祝賀會

【羅州支局特電】세계 올림픽마라손경주에 출전하야 당당히우승한 손기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양군의 승리를 축하하기위하야 라주(羅州)시민일동의 일홈으로 십일오후 일곱시 백림(伯林)올림픽촌에 잇는 손(孫) 남(南)양군에게 축전을 타전하엿다한다 그리고 금일(십일일)아침열시부터 라주청년회관(羅州靑年會館)에서 라주시민일동의 축하회(祝賀會)가 개최될예정이라한다

祝電

▲축손、남량군우승 倭館 윤정병
▲귀사를 통하야 조선동포의 우승을축함 天安 김창섭
▲우리선수 손、남량군의 우승을축함 載寧商事株式會社
▲근축 손、남량군 마라손 우승 載寧 早起團一同
▲귀사를통하야 우리선수의전승을축함 全州 朝鮮人府會議員
▲손、남량군의 전승을 축하함 全州 新興學校運動部
▲손(孫)、남(南)안세、개천기독면려청년회(价川基督勉勵靑年會)
▲귀사를 통하야 손(孫)남(南)량군의 전승을축함 수교시민일동(水橋市民一同)
▲세계의강적을 압도하고 훌륭히일상한 마라손왕이여 영원히빗나는명예를 축함 영구조선인체육회(營口朝鮮人體育會)
▲손(孫)남(南)량군을 축하함 대구 김기홍(大邱金基鉉)
▲손(孫)남(南)량군을 축함 (大邱 齋藤 寬)

軟式庭球軍 連續制霸
府縣對抗戰에

【宇治山田市發電】第二回伊勢神宮庭球大會府縣對抗決勝은 七日午後三時부터 朝鮮對東京戰으로열린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强豪東京軍을一蹴하야 連續制霸하엿스며 關西專門學校對抗戰에서도 朝鮮學生軍이 優勝하엿다

【朝鮮】(第一라운드)【愛知縣】
○崔水生 鄭士連 6…4 森 安井×
×黃基成 朴龍善 1…4 山村 瀨名○
○熊谷御堂 權福仁 4…1 淺野 安藤×
(第二라운드)
○崔水生 鄭士連 4…2 山村 瀨名×

◇府縣對抗戰決勝
【朝鮮】【東京】
○崔水生 鄭士連 4…2 關根 千葉×
○黃基成 朴龍善 4…2 小川 安井×
○熊谷御堂 權福仁 4…2 瀨戶 堀池×

올림픽籠球
第二回戰經過

【伯林올림픽빠스켓볼코ー트十日發同盟】籠球第二回戰의敗者戰을行한바 그經過는다음과갓다

부라질 32 (16 16…11 5) 16 中華民國
波蘭 28 (14 14…13 12) 25 라트비아
멕시코 32 (16 16…2 8) 10 埃及
체코 20 (9 11…4 5) 9 獨逸
에스토니어不戰一勝

籠球第三回戰對陣

【伯林올림픽籠球코ー트十日同盟特派員發】籠球第三回戰의 對峙陣은 다음과갓다

에스토니아對佛蘭西 智利對伊太利
멕시코對日本 瑞西對加奈陀
체코對우르과이 波蘭對부라질
米國不戰勝 秘露同上

拳鬪 李君惜敗
芬蘭選手에게

【伯林獨逸十日發同盟】世界올림픽拳鬪第一日은 十日午後一時(伯林時間午後三時)부터 獨逸홀에서열린바 李奎煥君은 스뷔나(芬)에게惜敗하엿다

【웰터ー級】(第一回戰) ▲第一組
○루데에크키ー(米) 判定 카미리ー(加)×
○푸릿츠(佛) 棄權 코스런조(우르과이)×
렘지(匈牙利) 判定 빗트리(伊)×
▲第二組
○스뷔나(芬蘭) 判定 李奎煥×

【觀況】李君은 變化만흔스피ー디ー한攻擊을하야『레ー니』에이서서는 越等히 스뷔나選手를 壓倒하엿스나 第一라운드 中間쯤에不意의 스뷔나選手의 右猛打를입어 에마저 一時다운되엿다가 奮起하야 第二回以後는 技術을發揮하고 룩·렌지에 巧妙한작전을 繼續하엿스나 最初의 다운으로因하야 判定으로惜敗하엿다

【푸라이級】(第一回戰)
○크츠츠(濠) 判定 비잘스키ー(波)×
○라리ー(米) 判定 베우덴(체코)×
○베르그한센(諾威) 判定 라셀(英)×
○소브코아익(波) 打倒 쿠ー바ー(濠)×
○中野千代人(日) 判定 사브오라이넨(芬)×

【빤텀級】
○올리츠(멕시코) 判定 라스런프(加)×
○바ー네스(英) 判定 드레츠알(체코)×
○하난(南阿) 判定 프스코ー넨(芬)×

在鮮中에는公私間여러가지로懇誼를蒙하얏사옵고今回退鮮에際하야는炎暑를不拘하시고親히餞送해주시사참으로感謝하옵기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昭和十一年八月十一日
宇垣一成
貞子

安孝式氏室人全州李氏八月十日(陰六月二十三日)午後二時別世玆以訃告

丙子八月十日

嗣子 鐵
次子 鈺
次子 錠
孫 鎬
孫 鍋
孫 鋼

親戚
友人 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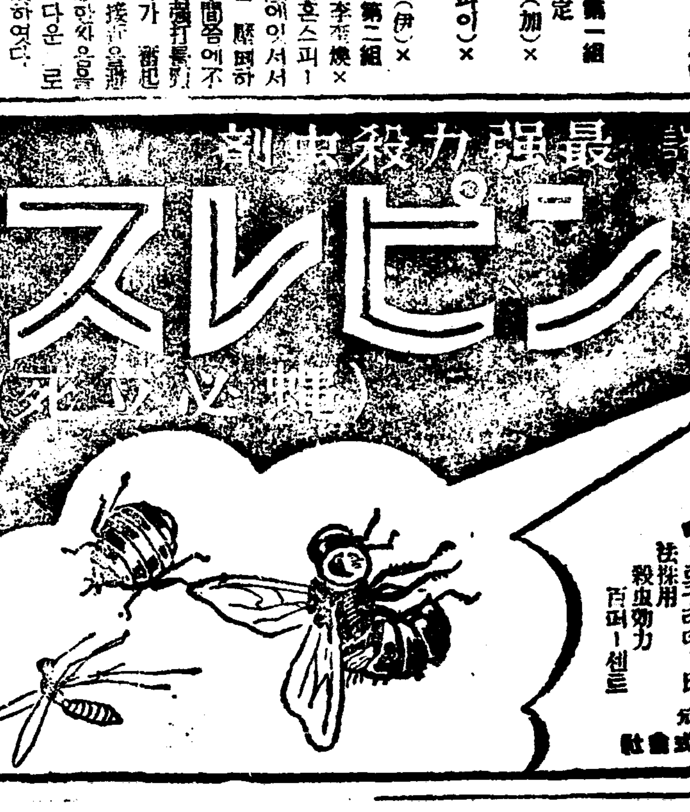
發靷 八月十四日午前十時
葬地 楊州郡渼金面一牌里
花環은拒絶합

[illegible]

安川コロダイン
主治効 胃痛、腹痛 食傷、中毒 酒醉、船醉
全國藥店에잇슴
定價
東京 安川晃榮堂

夏!胃腸의危機來!!
胃腸疾患征服에 安川コロダイン!
胃腸疾患에卓越한効果가잇고恒常備救急藥으로서內外에賞讚을博得한다。
安川コロダイン을꼭 試用하시라

Columbia
달빗어린沙漠

最强力殺虫劑
イピレス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一掃식혀라!
傳染病의媒介者 파리 모기·빈대等도인피레스의撒布로곳全滅된다

躍進朝鮮！世界第一位！마라손王孫南両君万歲

家庭

★ㅡ바다의생활전선ㅡ

청량음료는 그냥마십시요

밀시집으로 빼라 울리면 재맛이 나지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집에드러안젓기보담 거리에 나가서 한박휘 휘ㅡ도라드러오면 잠도잘오고긔분도 조흘것입니다 더구나거리를단이다가 깨끗한 찻집이나 식당에 잠간들어가서 돈전전이나던지고 어름채인『소ㅡ다수』나 홍차가튼 청량음료를 한잔을 식서마시고 돌어오신다는것은여름철에 그럴듯한일입니다

그런데 이청량음료에는 어느책당에서든지 매개 밀시집으로 만든대롱를 끼워줍니다 이밀시집은영어로『스트로ㅡ』라고들은는것인데,누구나이『스트로ㅡ』로빠라올려서 먹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스트로ㅡ』가 청량음료에 딸키면 유행는『땐스홀』가튼곳에서 몬지가욱료를표면에 안게됨으로 몬지업는 음료를 마시거위하야보리집 대롱이 생기이게되엿습니다 그럼으로 바람이를공중지가낫지안는곳에서는 익스트로ㅡ를쓸필요가 업습니다

소ㅡ다수는 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가티 탄산까스(炭酸瓦斯)를압축하야 맨든것인까닭에 오래소홀안 그냥두면 까스가이서저서 맛이업서집니다 그럼으로이 [illegible] 소ㅡ다수를 보리집대롱으로마시면 빠랑울리는 동안에중요한깨스」가 그냥이속으로들어가서혀바닥에 다일사이가 업시넘어가 버림으로 맛도업고 시원한 감각도 업서지는것입니다 시원한 맛이라는것은 소ㅡ다수각『까스』로화할때 혀나내장으로부터 더운긔운을 빼서감으로시원한 맛이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소ㅡ다수가 법서대롱속으로빨리여 올라오는동안에『까스』로화해버린뒤에 마시는것은 아모의미업는 일이겟습니다 대중에는더구나 대롱으로『소ㅡ다』수를딸우어서 마시는사람도 잇스나이러한사람은 대채무슨 필요로『소ㅡ다』수를 마시는지 몰으겟습니다 그럼으로 청량음료를사서잡실때는 보리집대롱을 쓰지말고 그냥곱부에 입을대이고단숨에죽ㅡ들이키는것이 제일효과적입니다。

童話 이상한알녹새 (三)

南基薰

『용남아저엿 이파란니풀드리는것이니 장에갓다 파십시요』용남이는 너무도 기가막혀서

『아니다 이런파란니풀 들이붓지안허서 아모도 사지를 안는단다』이말을들은 알록새는

『아닙니다 이것이 파란닙이지만 불이부터라하면 붓고 꺼저라하면 꺼지는이상한 니피랍니다 얼른가지고 가서 파러보십시요』

이러케말하고는 알록새들은또 어듸론지 업서젓습니다。

용남이는 너무도 이상하고신기한일이라 정말일가하면서 엇더튼 알록새가 떠다준것이니까 지고나가자하고 마른니픈 모도버리고 파란닙만 한부금올해가지고 곳도라왓습니다 어머니는 용남이를기다리시다가 파란닙만 한봇음지고 오는것을 보시고는 상을찡그리시면서

『아ㅡ이게 무슨일이냐 오래동안파리지 안흐면풀이 안붓흘테이니 이것을든가사겟니』 안뒤듯이 입맛을적적다시면서 말슴하시엿습니다 용남이는 어머니의 말슴이 채끗나기도전에

『아니에요 어머니 이파란니픈 신기한닙이랍니다』하고 용남이는 알록새가 하든말을하나도 빼지안고 죄다 하엿습니다

『응ㅡ그래서 그러케밥을 만히가지고갓섯고나 어디、그러면한번때보자』하고 한줌을집어 아궁이에 넛고

『부터라 부터라』한축 신기하지요 파란니페서 활활불이일어나드니 눈깜짝할새에 솟속의 밥은끄러습니다 그래서 밥이타겟기에 이번에는

『꺼저라 꺼저라』한축 그러케 활활일러나든불은 또꺼젓습니다 그러치만 이런것을처음에는 느구든지 거짓말이라하고 사지들을 아니하엿지만 원채효성이지극하고 마음이 착할뿐만 아니라 당초에 거짓말이업는 용남이라 모도들밋고 사다 때납앗습니다 왜아니겟습니까 이파라니픈 용남이의 거짓말이아니라 말과 똑가튼 신기한 니피엿슴니다 다음날도 또그다음날도 용남이는 부지런이 알록새가 떠러트려주는 파란니플 글거다가 장에내다 파라서점점 돈을 만히버럿습니다 이말이 동내에퍼지자 모든사람들은 파란니플 어되서 해오는지 알려고들 애를 썻습니다 그럿치만 용남이는밤이도전에 아모도 모르는틈을타서 동구밧으로 나가는지라 도모지 알사람이업섯습니다 그러나용남이가 사는동내에 욕심쟁이라는 별명을듯는 늙은이 부자가 잇섯습니다 이부자할아버지는 엇지도 욕심이만흔지 돈을작고작고모아서 밋헤돈이 숨을못쉬도록 만흔대도 어느때나 돈더몰 궁리만하고 잇섯습니다

어느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용남이의 파란닙말을듯고 엇덧게하면 파란닙나는대를 알가하고 이리궁리 저리궁리하다가 하인을 시켜 용남이의 파란니플죄다살테니 가저오라고 햇습니다

이말을들은 용남이는 파란니플 한짐잔득지고 욕심쟁이 할아버지게로 갓습니다 용남이가 파란니플 지고오는것을본 욕심쟁이할아버지는 반거운듯이 우스면

『아ㅡ용남이냐 내파란니플 다사마』 말속에는 어떠케하면 잘 달래가지고 파란닙나는데를알수잇슬가하는생각이 작고작고치밀렷습니다 그러나 다정스러운듯이

『그파란니픈어디서해오는게냐』하고 물어보앗습니다『아니에요 그것은말못합니다』하고 처음에는 도모지 말을안하리라 생각햇스나 조흔음식을 한상차려주고 또돈도만히주면서 어찌도 친절하게하는게 할수업서 큰니나무와 알록새말을 다하엿습니다 욕심쟁이할아버지는 올타됏다 잇다그나무를 베여와야겟다하고 용남이가 돌아간후 하인들을시켜 그큰느리나무를 베여다가 산가리싸힌 파란니플 보고는 혼자깁버서 춤을출지경이엿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하면서부리낫케 한줌움켜어다 아궁이에너코『부러라부러라』하엿드니 금방활활 부럿습니다 그러나불이갈수록점점힘잇게이러나 기둥이타게되여 집안사람들은 깜짝놀라 빨리끄지안흐면 큰일나겟다고 물을빨리빨리하면서 야단들햇습니다 그러나욕심쟁이할아버지는 아조 호기잇게 이런것이라고 하면서

『자ㅡ내가 꺼저라 꺼저라 할때 니보라고』하면서 한번허허웃고나서는 꺼저라 꺼저라한축 꺼지기는커냥 점점 더부럿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성이잔득나서 더욱큰소리로『꺼저라 꺼저란』하고 야단야단햇스나 벌서 기동으로부터 집웅까지 불길은 올라갓습니다 아ㅡ이욕심쟁이할아버지는 얼굴이노래저서 속히 물을가저오너라 물을 물하고 야단법석이낫습니다 그러나 물을부면석유를 부는것가티 더욱더 힘잇게부럿습니다 물이야 불이야할틈에 그크나큰집은 불바다가 되엇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할아버지는 그래도 돈이 못이저서 팡으로 돈을꺼내러 가다가 그만집과 가티 재가되고말엇습니다 이때에 불가운데로부터 알록새 수십마리가 돈과보물을날가지고 날러나와서 용남의집마당에다 싸허주고는 어디론지 다시날러가버렷습니다 용남이는알녹새가 갓다준돈과 보물을 그동내 불상한사람들에게 보하주어 용남의 동내는아조아조 재미나게 지내는동내가 되엿습니다 ─끗─

책상과씨름하면 부지중큰병든다

가장 위생적으로 사무를 볼일

월급쟁이여 알아두라

월급쟁이들은 왼종일 한 자리에 부터 안저게 되는데 거긔다가 일에 몰리고 사람에 시달리어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피곤하게 됩니다。 그피곤이 밀리고 밀리어 차차로 저항력(抵抗力)이 줄고보면 결핵병가튼데 걸리기 쉬운 것은 물론이요 그러치 안래도 자연 조로증(早老症)을 면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쟁이에게 그 무서운 피곤이 차히기는 다른 철보담도 녀름이 제일심합니다。 그런만큼 누구보담도 월급쟁이들은 녀름 한철을 잘 지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긔네직업상관계로 잘 먹고 또 만히 먹는다고만 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를 어떠케 해서만 가장 위생적으로 볼수 잇느냐 하는 것이 먹는 문제보담 더 큰 문제입니다。

월급쟁이의 피곤은 정신적이라는것、즉 머리로부터오는다는 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그점에 잇서 육체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피곤과는 전연히 틀립니다。 즉월급쟁이들은 피가 신체의표면부로 몰리고 뇌ㅅ속에는 적어저서 뇌수의 중추신경(中樞神經)을 형성하고 잇는 세포에 탄산까스라든지 유산이라든지 그런 피로소(疲勞素)가 밧그로 나가지 못하고 잔득차히잇게 되는데 육체로동자들은 근육편에 피가제일 적어저서 그런 피로소가 근육에 차혀잇습니다。 그런데 뇌수는 정신의 근육과 비교하야량(量)으로 아조적은만큼 육체로동자들은 평상시보담몸식을 만히 먹어야만 할는지 모르되 월급쟁이들은 반듯이 그런것도 아닙니다。

×

평상시에 보통으로 섭취(攝取)하는 영양소(營養素)를 중심삼고 보다면 육체로동자들은 그 륙십배이상 백배까지를 필요로 하는데대하야 월급쟁이는 겨오 그 배를 요구할뿐입니다。 월급쟁이들이 육체로동자와 가티 음식만을 만히 먹어서는피곤하것이 낫기커녕 도리어 소화불량을 이르킬 염려조차 업지안습니다 그럼으로 월급쟁이도 평상시보담 만흔 영양소를 섭취하여야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영양소가 만흔 음식으로 배를 쉬이 채우는 한 채우는 동시에 잘놀릴 외 식 다 자도록 하는것이 좃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소의 섭취보담도어느의미론 잘을 잘 자야만한다는 것입니다。

×

어떠케 하면 사무를 가장 위생적으로 볼게 됩니까? 근본되는 그 문제를 연주어 드려야만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긔는 두가지의방법이 잇습니다。 첫재는정적방법(靜的方法)이요 둘재는동적방법(動的方法)입니다

(정적방법)

한가지 사무를 꼿꼿이 볼 때마다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잇고 숨을 아래ㅅ배로 스르르 드려 쉬어어가지고 한참동안 그대로 잇는것입니다。 일분이븐도 조코 단 삼십초도 조코 그러케 멧번을 되푸리합니다 그러나 배와 아래ㅅ배로힘을들아서는 도리어 손이 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야합니다。

(동적방법)

정심때나 또는 손해면을보는 시간에나 잠까잠깐이라도 입팔을 조이고 바가공긔를 드리마시어 심호흡(深呼吸)을 합니다。 물로 산이나 바다 까의 공긔가튼데서 심호흡을 하는것이 매조치안은데되서라도 심호흡을이 나쁠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즉이 일어나서 라디오체조도 조흡니다。 다지손과발에 넘어 힘을주어서는 재미업습니다。

×

정신스긔가 업다고 담배를 파도히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해롭습니다。 차를 만히 먹는것도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벼루연말을만히 흘리니까 곤불을 아조 안 먹을수는 업지오만 한사발 두사발 벌떡벌떡드리키는것은 조치 못한니다。 어떠가튼것도 조흘까닭이 조금도 업습니다。

폐병이나아닌가

問 이십세긔혼남자인대 이년전에 기침을시작하얏스며 때때로담과가티 피덩어리가 나옵니다 근변에는 별연고가업섯스나이개월전부터 감긔기운이잇는데아모치료도 안하얏더니 일전에또 담과가티 피덩어리가나오며 가삼이빼근하고 불편합니다 소화는 잘되나 두통이심합니다 폐병이나아닐까요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市內정생)

답 가래에 피가섞겨나오니폐병이던지 아니던지 진찰할필요가잇습니다 폐병이면속히치료바드면나흘수잇고 또난 폐결핵이아니라도 다른병인줄 알게되면 안심이될것이아닙니까 병원이만흔 경성에서사시게됨만도 행복일것이니 속히진찰을 밧게하십시요 폐병의유무는 진찰하여야 확실할것입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이겻다 이겻다。
우리『손긔정』선수。 키는 적어도 힘차고 몸은 적어도 당차서 백리길을 두시간반에 번개처럼 뛰엇네。 키크고 코큰 서양 선수들 물러서라『후라 후라 후라』우리선수 손긔정。

(골든선수 장용봉)

남성획득학강좌

어더케하면 남자를 반하게할까 어떠한 남성이 일생을남편으로 섬기기에 적당할가 이것은요사히 처녀들이 알어두어야할문제이면서도 어느학교에서든지 이것을 가르처주는곳은 하나도업섯다、그러나 이중대한학과의강좌가요사히『산디에고』에서 열리게 되엿스니 주임교수는『아이리ㅡㄴ‧실버ㅡ』라고 부르는금발미인의 처녀입니다。

엇던신문의 기자가『실버』양을 차저가서 포부를 무러보니

『금년은 녀자로부터남자에게 결혼을 청하는 윤년이다 녀자는누구나 금년과 가티조혼 긔회를노치지마러야합니다 여긔에는 어떠한 남성이 남편으로서 적당한가를 아라보는 눈을기르고 어떠케하면 남성을반하게 할수잇나하는 그방법을 신중히연구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이것을연구하기위하야 이강좌는 개설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좌에서는 어떠한모양을 가지고 어떠한맵울하는남성이 정말부인을 소중히 녀이는 남성형(男性型)인가를 가르칠뿐아니라 남성을반하게하는 화장술、옷입는법은 물론 어떠한경우에 키스를 하느냐는것도 가르칩니다

『그다음엔 무엇을한다는것도가르처줍니까?』

하고 기자가 뭇는말에

『처녀에게는 가르처주어서 조흔것과 나뿐것이잇습니다만』

하고 조금어색한 표정을하얏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ー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四君子를包含함)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 左記一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 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贈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前記支局은遠隔하야 搬入期日은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支局에提出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目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級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 地方支局에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チミツシン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지밋신

밧븐기침‧천식

더워가심한요새에 몹시 고통을주는 천식 밧븐기침‧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의특효약으로 유명한「지밋신」은 조선사람의 체질과습관에 꼭맛는약인만콤 속히 병화근에작용하야 아무런부작용의염여업시 근치가된다고 칭찬을밧고잇슴니다 한두번복용에 그럭케 심하든 발어사오며 괄々하든목이순하게되고 기침의도수도 적어지며 밤잠을 잘주무시게 만들어줍니다

백일해‧홍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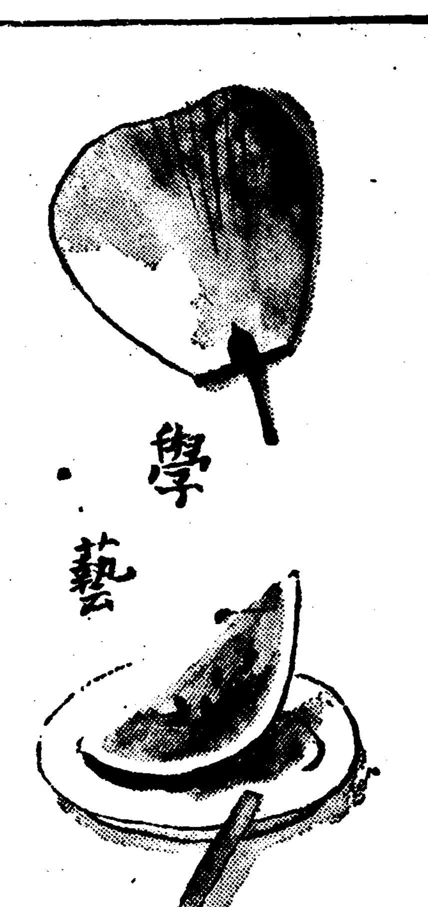
어린애들의기침병중 가장위험하고 고통이심한 백일해‧홍역의 특효약으로도 구미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저약이니 적확한 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 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금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슴니다 그럼으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도 늘칭찬으로사용되고잇스며 백일해갓치 오래쓰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먹이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 발작과 구토를다스리고 몸쇠약을 회복식혀주고 밤에 못채지안코 잘자게됩니다

기침을하거든 한숙갈…잠재일때에 한숙갈식먹이시면 곳 낫슴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五十錢
全道藥房에 잇슴니다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TY-K-40



銷夏漫筆 天才發揮와環境 【八】

湖岩

九日伯林에서 열린 마라손 競走에 孫基禎一着, 南昇龍三着으로 朝鮮의 마라손 覇權이 마침내 朝鮮靑年의손에 주어젓다。

특히 孫君으로 말하면 一着뿐이랴 二時卅九分十九秒二라는 실로 마라손以來 超人的新記錄을 지엇다。이點에서 月桂冠의榮譽를 다는것이고 한사람 孫基禎이 아니라 올림픽大會에 朝鮮人의 地位를 그만큼 노피人다고할것이다。斯界의先達인 金恩培君부터 친다면 朝鮮人이 運動競技에 잇서서 世界的으로 進出한것이 不過數年에 이처럼 超스피드의大成績을 거두게된은 참말놀랄만한 現象이어니와 오늘날까지 그네들의 名選手가 前後하야 모다 養正高普에서 輩出하게되것은 同校의 指導밋 奬勵한結果에 돌리지 안흘수업다。

다만 朝鮮人의 目下事情이 돈들지안는 運動競技밧게 더할수 업스므로 흔이마라손을 擇하게되나 優勝의그裏面에는 눈물겨운悲哀가 무처잇는것을 알어야 하겟다。孫基禎君도 그中의一人으로 그는본래 赤貧이 시츤듯한 無產者로 태여나 困窮과싸우면서 學業과 마라손에 꾸준이 努力精進하야써 마침내 오늘날의 成功을 엇게 되엇다 한다。

人間은 境遇如何에 따라 逆境도 克服할수 잇다는 一實例를여기서도 보앗거니와 天才를發揮함에는 順境이 勿論 조치마는 有時乎逆境도 도리어 그를 玉成하는수가 잇다。順境에 노힌人物의 成功보담 逆境에 노힌人物의 成功이 더욱 貴한것이다。三月芳春에 亂하게피인 紅杏碧桃가 아름답지 안흔것이 아니로되 風霜을 능멸히녀히는 秋菊과 氷雪을 우습게녀히는 冬梅가 일층더 아름답다 하겟다。

결고지 冬眠으로부터 차침 눈떠가는 朝鮮人은 오늘날와서는 홀로運動競技로 도곰은 靑衆籠球로도 世界에 進出하고 잇다。이번孫南二君外에도 朴龍嶽君의 東洋美術展入選의 豫有와 李貞植氏의 新興美展의 美交小說發表라든지 이것이 모다 朝鮮人의才能을 對外的으로 表示하고잇는것이 아닌가。

안에잇서서는 言語를 비롯하야 理學및農學에 學位를 가진이만 치드라도 三四十人이 되거니와 아즉學位는 가지지못한이中에도 實力이 相當한이가업마든지 잇다。이뿐만 아니라 成績의優秀出身이 아닌이중에도 오히려天才의閃發이 世人의耳目을 놀랄만한 發明과 發見이 되여나타나는 事實로 말하면 朝鮮人의 文化的玲瓏한 素源이 아즉 마르지안햇다는 證據이다 얼마동안 學術振興을 시작하거서지만 다시活動을 始作하게 된것으로 이로부터압날에 科學的敎育이 普及되고 또그指導및 奬勵의方法이 適當하게 된다면 그天才發揮를 헤아릴수 업을것이다。

朝鮮人을 歷史的으로 볼때文化에 잇서서는 아주成績이 優秀하엿스니 印度佛敎를 輸入할때도 中國人外에는 朝鮮人을 따를이 적엇섯고 中國朱學을輸入할때도 中國人外에는 朝鮮人을 따를이 적엇섯다。

近代泰西新文化를 輸入함에 잇서서 어찌하로 그成績이良好하지 못할리가 잇스랴 要컨대 環境이 適當하게만 된다면 素質의良能이 그대로잇는以上 반드시 또다시 훌륭한 成績을내리라고 밋는다。발서부터 그一端이 보인다。

(八月創作評)……⑥ 構想에對한作家의苦心

金 煥 泰

仁旺山(中央)宋影作

構想에 努力의 痕跡이 조금도 보이지 안는다。다시말하면 題材를 作家의 主觀아페 屈服식혀 그를 어떤 한 作家의 苦心의 痕跡이 全然 보이지안는다。

……焦……

作品의 題材가되는 人間生活이라든지 思想은 各各 그獨自의 主張과 存在理由를 가지고잇다。그리하야 이各其獨自의 主張과 存在理由를 가진 人間生活이라든지 思想을 그것들을 全然 無視하지 안코 作者의 主觀미테 統一하라는 그곳에서 作品製作의 苦心이 發生하는것이며 따라서 그統一이 어느程度로 遂行되엿는가 그리고 그때의 그苦心이 얼마만한 程度의것이엇는가(題材가 廣大한 深刻할수록 그苦心이크기때문에)에 依하야 그作品의 價値가 決定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作品에는 아페서말한바와가티 아모런 題材統一에 苦心의痕跡이 업스며 따라서題材가 조금도 作家의 意圖압헤 屈服하지안햇다。

이作品에 잇서서 作者의意圖는 아마理想에불타는 한靑年의

……現……

實아페 屈服하도그 理想을 犧牲하는 悲哀를그리랴고 한듯하다 萬一그러타면그의理想의 目標는무엇이고 하나여야할것이다。그런데이 作品에잇서서는 방용철의 理想이 처음에는 偉大한文豪이든것이 그다음에는『대학을 맛치고 본관이되고 고등관으로 올나가서 조선사람으로서도 이가르인제가 잇다는것을 움출하게 내보이자』는데로 變하엿다。따라서이곳에 作者의焦點이 흐리여젓스며 作品이 그統一을일헛다。

그러나 이 作者의意圖는 나의推定한바와가티 現實아페 無慘하게도 그理想을 屈服當한 한 靑年의悲哀를 그리라는데잇지안코 現實의 惡政아페, 우리人間의 理想이破壞되거나 屈服되어가 그過程을그리랴고하엿든지도 몰은다 萬一 그러타면 現實아페한理想

……破……

을樹立하고 다시 그現實 理想을 過程을그려야 할것이다。그리고이에는 그의理想은 아즉도 完全히 現實에게 敗北當한것이아니요, 挑戰한勇氣라함을 가지고 잇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또 그것만으로 그輪廓이 確實하여야할것인데 그러지도안타 따라서 한번現實에 理想의 蹂躪을當한後에 現實아페 屈服하나 아즉도 얼마만한 남은勇氣와 힘을다하야 새로운理想을가지고現實에 挑戰하는過程을 그리라든 作者의意圖가 稀微하여지며 高等官이 되겟다는 그의 理想은 다시 독직어적으로 성공하야 『생활의안정을 어더서 『본래의 목적인 큰문호가 되라는것으로 변한다。

이에 다시 이作者의 이作品 속에서의 意圖는 結局理想的偉大한藝術家가 되라든 한 靑年의 現實아페 에 나타난 現實과 事態는 各各 제法則을 完全히 그대로직하고 잇서 作家의 意圖아페조고마한 屈服도 協力도 하자안코 잇다。

……文……

學的素質이 잇스며 進步的思想을 가진 作者는 前半에 잇서서 방용철이가 大端히 勤勉한 사람으로 그리랴고애를썻다。이것이 萬一 終末에 가서 방용철이가 現實아페 敗北한때에 우리로하야금 그를그리케만든 現實에對하야 더욱 無慈悲하다는 늣김을갓게하고 또 방용철에對한 同情을 깁게하기爲하야 그리하엿다면 그意圖를 우리가 理解할수는잇다。

그러나 作者가 現實을 그의 意圖에 協力하도록 屈服식히지 못하엿기때문에 방용철이가 급사에서 고원이되고 고원으로다 고등관합격이 나중에 차차사회적으로 발전이 되여서 근로문학으로변』하자 官廳에서오고『조선의 젊은이인 자기는 자식만나노코 죽어 버리기가 실혀』『결혼 한지 사흘밧게 아니되는 안해를 보가로 쪼차 바리고』『어떤 커다란 일이 밝가이되여서 근로문학패들이 대부분에 여저버리게되자』동경으로 고학의길을떠나

……帝……

國大學을 卒業하고 다시또 朝鮮에돌아와前에 단이든 T官廳에 들어가고 하엿다는 事實들 새이에 아모런 統一도必然性도업다。따라서 終末에가서 리재청의 對한警告를 삼고저하는 생각에서 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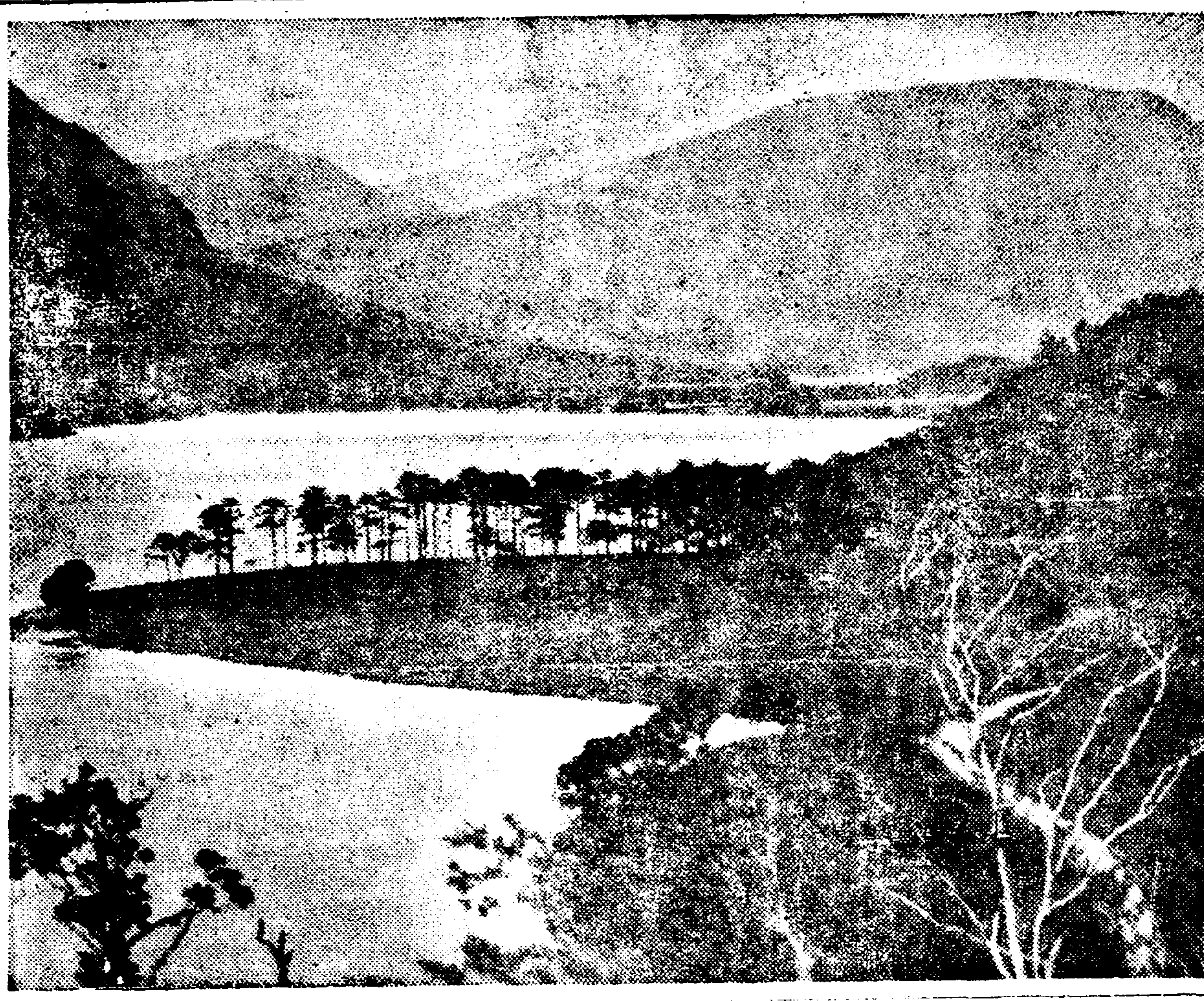
……無……

理想이 현實하는情境을 그리라는데 잇는지몰으다는 나의 처음推定한 그點에 잇다고바게는 볼수업게되다。그리하야 이곳에도이作品의 餘地업는 破綻이 暴露된다。

무엇보다도먼저 방용철이가 그의理想을가지고 現實과싸호든痕跡이 그리고現實의 그의理想에對한 反撥이 업다。다시 말하면 作者가 現實의 本來의 主張과存在理由를 조금도 顧慮하지안코 自己의 意圖아페 屈服식히라고 하엿기때문에 이作品속에 理想과現實의 싸홈이 업다。이리하야 作者는 그곳에 完全히 作品의 焦點이 나타나고 잇고, 또 이焦點을 가장 强烈히 燃燒식히기 爲해서 自己가 이곳에 그린 現實과 事態가 協力하고 잇는 줄로알고 잇는지도 몰으나, 나의보기에는 이作品속키 이作品評으로서 그러한現實에 다고할수잇다。

『凡作』의 一言으로 이作品을評하라든것이 넘어나 길어졋다。그러나 이는 오로지 우리文壇에는 이作品과가튼 作品으로서 許하기조차어려운 極히 初步的 인缺陷을 가진作品이 넘어나만흔 이 우리의 어이업는 失笑를 사고야 말엇다。

아모런 統一도必然性도업다。따라서 終末에가서 리재청의 對한警告를 삼고저하는 생각에 안해가 십년전自己의 소바준안해유영희인것을 發見하고『올흘 이나오는것을 억지로 참고인왕산편을 향하야 줄다름질 처서 간』는그 가장悲劇的이어야할場面이



——海岸線의 徐緩調——

一漢詩一

『薔薇』=押香

桐岡 考選

佳作三之三

翠軒 朴炳鎬

繞架重重萬朶芳
百般婀娜帝紅粧
輕於蕭々微風舞
濃似遲遲細雨香
石綠參差成翠幄
雌黃掩映倚靑墻
滿庭新月無人夜
愛爾丰容進一觴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學生通信

智異山登陟記 (二)

☆一(第一信)=碧松寺에서一☆

藥專 李鶴徹

그러나 朝鮮은 天然的으로 健康에 適當한 空氣를 가젓스니『사하라沙漠까지 가지아니하여도 얼마든지 健康을 增進식힐수잇고 美容은 가질수잇지안켓소? 最近 스포쓰朝鮮이 世界的으로 躍進하는것을 보아도알것이아니오? 그러니 굿타여 푸른바다를찾고 노픈山에 올으지아니하여도 한거름옴기면 얼마든지 맑은 空氣를 呼吸할수잇는것이오。

K兄! 이절後面에 잇는 碧松亭이라고 하는 조고마한 庵子에잇는 老僧은 八十六歲라하오 人生七十古來稀라하는데 不老長壽에는 新鮮한空氣와 맑은물이 必要하다는것을알수잇소。

K兄! 밤이되니 비는 벌서 그치고 살가라 나리쏘어는바람과 멀리 들리는 소리가 차거 쏘다지오。天王峰에서 불어나는바람이 碧松寺를 둘러싸고 함께부다치니 외天地는 바람소리, 비소리, 물소리뿐이오。휘돌으는 바람살에 아람드리 古木이 붙어지며, 岩石이 문어지는 소리도들리오。그속에 깜바깜바明滅하는 반듸불가튼 法堂燈火에 비치어『諸天地界』이라고 쓴 東黑白高低紀德天地界를 이라고 ... 한 木版이보이오。

밤이 기퍼가니 佛經외이는소리도 뭇치고 사람의 기시적이라고는 들리지안소。山寺의 밤은 참으로 寂寂하오 千古의秘密을 감추운 數千의 佛經들은지 極盡한 哲理를품긴 佛經의 殿堂은 저뎌 노옵에 차이밀이업소。

아침에는 먼동이트기前에 霧明을 告하는 쇠북소리와 磬聲한 金佛소리가 새벽空氣를뚤리오 쇠북소리의 餘韻한 餘音은 遠하게 聯하게 寂寂한 山岳의저 덤어로 멀리멀리 살아저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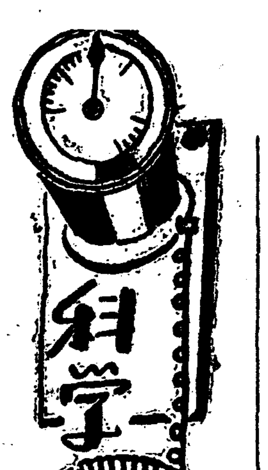
이鐘소리는 深奧한 人生의 哲理와 宇宙의 無限한 眞理를말하는듯하야 나의머리는 無意識的으로 숙어지오。나는 더누어 잇슬수가업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밧그로 뛰어나와 가삼이 터지도록 세번深呼吸하고 淸浸한 石井에가서 洗水를하고나면 東쪽하날이 밝아오오。

第二信『天王峯의 一夜』

K兄! 七月二十七日 心齋가 나오는 文殊臺 天王峯을 向하야 쪼저쌋소。天王峰의 바른山麓에있는 碧松寺에서 午前八時에 出發하야 十餘日이나 雨中에 있든것이 기다렷든 登山하기를 얼마나 기다렷겟소。老僧의말도 비개인뒤 첫날이 登山에 第一適當하며 晴空도 淸朗하야 쏘아오르 하다고하오。寺下村落에 사람을 보내 登山案內人 한사람과 人夫한사람을 불너왓소。도끼, 낫, 톱, 寢具, 天幕, 三日間 먹을 糧食을 등에지고 午前八時출天

王峰 登山의 길을 떠낫소。東南으로 天王峰밧지, 傾斜가 急한 비탈을 기어올나 솔새가 청승스럽게 우는 蒼成林의 얼커진 으슥한속을 걸어 數十丈 치소슨 岩壁미트로 방삭치달앗소。山밟지 全體를 둘러싼 秦岩한 層疊集結의岩層 層疊의暑 틈마다 알맞게 繁殖한 數十種의 樹林이 綠괴 黃괴 밋틈 의 무르녹은 造化의 神匠을나타내여 岩層美와 林相美와 峽谷美가 三位一體로 結成되엿소。東北으로 갈등은 峽谷의 稜部에 東으로허리길을 기어올나 遠近 山岳들 바라보니 멀리 東北으로 德裕山으로부터 줄기차게 조차 오는 嚴山은 南으로 雙溪山, 東으로 藍湖, 西으로 ... 天王峰의 二天王峰을 짓고 그山脈左右로 水晶가려 모진 ... 峽峰이 一大連山을 ... 일우엇소。

어진 비탈길을 이옥고 올나가니 맑은물 소리처흠으는 溪谷에 다달앗소。벌서 正午가 지낫슴으로 신(鞋)나무그늘진 野營石우에 三人이 團坐하야 午飯을 맛치고 먼리구름우에서 나려다보는 天王峰下峰을 머리에 이고 混成密林속으로 헤처올나가오。下峰밋까지 올나가니 길이두 가지로 나노아지는데 左便길을 잡아 조금올나가니『법바위』를 지나오。 ... 丈岩石의 層層이 太古로부터 生和까지에 걸처 悠久年月의 風霜에 削되어 ... 근 ... 어저서 奇幻美怪의 千態萬象을 우엇고 그岩石의 틈틈으로 各色草木이 우어저 ... 한 風雲 ... 一廣場... 는 洞穴이잇는데 사람이 ... 을만한 ...



日光療法과 大氣療法 (六)

李富鉉

肺結核의 日光療法

(가)肺結核의 治療되는 理由

肺結核에對한 日光浴의 効果는 별서疑心할 餘地가 업다 그러면 日光浴을하면 엇지하야 肺結核의 治癒가 促進되는가。人體의 表面 或은 表面에 갓가운 部分의 結核例를 들면 皮膚結核(이것을 狼瘡이라고한다)가 日光浴에 依하야 血液循環이 良好해지고 健康한細胞의 新生이 旺盛해지는 以外에 直接殺菌作用을 볼수가 잇섯다 그러나 肺結核에서는 直接殺菌作用은 볼수업다 間接으로 肺의 充血 輕度의 炎症滲出等으로 因하야 結核菌의 繁殖을 抑制하고 다시나아가 菌을 殺滅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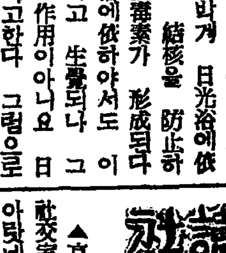
日光浴에 依하야 皮膚에 褐色着色이 生하고 이것이 皮膚의 抵抗力을 增大식이고 日光의 深部作用을 助長식인다는것은 前述한 바이거니와 그밧게 日光浴에 依하야 皮膚에는 一種의 抗毒素가 形成되야 結核을 防止한다고한다 空氣浴에 依하야서도 이것이 發生된다고 生覺되나 그것도 空氣의 作用이 아니요 日光의 作用이라고한다 그럼으로 日光浴에 依하야 發生되는 抗毒素가 皮膚에 잇서서 優勢일것은 理解할수잇스며 이抗毒素가 血液에 依하야 運搬되여 全身的인 結核의 毒을 解除하고 結核菌의 繁殖을 抑制하게된다。

『쿠네』(Kune)『홀타-』(Hortaler)은 動物의 胸部에 紫外線의 强力照射를 行하야 肺의 充血 細胞浸潤 壞死等을 證明하고 日光의 肺結核에 對한 治療効能은 直接作用이라고하얏다。그러나 胸部를 가리고 照射하야도 同樣의 變化가 오는것을 보면 直接作用보다도 間接作用이 더 重要性을 가젓다고 보는것이올타。

以上의 事實을 總括하야보면 日光浴에 依하야 皮膚及全身의 抵抗力이 强해지고 皮膚의 調節作用이 完全해진다는것을 想像할수잇다。特히 皮膚가 重大한 役割을한다는것은 이 重大한 意味가 잇는것이고 全身的影響도 肺自身뿐만아니라 光浴에 依하야서도 皮膚의 調節作用이 完全해진다 그뿐만아니라 日光浴에依하야는 空氣浴 以上의 强한 刺戟으로 一層 더全身의 抵抗力이 强하게된다。

光線은 如何한 光線이든지 그物理學的性能의 差異가 有함에 不拘하고 生物學的作用은 同一하다고아니할수업스며 皮膚及直接乃至間接으로 內部臟器와 病部에 一種의 刺戟을 與하야 積極的으로 免疫性을 노피고 따라서自然治癒를 促進한다고 生覺할수잇다。日光浴에 依하야 血液循環이 조아지고 呼吸이 旺盛해저서 瓦斯代謝가 抗進되고 血液의 形成이 盛해진다는것은 前述한바이다。이가튼 諸條件도全身病인 肺結核의 治癒上 効果잇는것이라는것은 理解하기 어렵지안타。

以上말한것을 簡單히 말하면 日光浴에 依하야 皮膚의 調節作用이 조아지고 同時에皮膚에서 結核을 退治하는 一種抗毒素가 形成된다。血液循環이 조아지고 新陳代謝가 旺盛해지며 肺自身에는 充血 炎症 滲出等이생기어 結核을 治癒케한다고 生覺할수잇다。



▲京城黃哲周君에게 朝鮮日報社交室에서 君의반가운 消息을 아랏네 꼭回答을, 바라다고 하엿스나 여러事故가만흔故로 먼저君의 住所만알니워주기바라네 나는開原에잇스니! 이만하네
開原大街六五 方俊明

▲詩를 研究하고저하오니 適當한 書籍又는 雜誌를 紹介하여주시압。(燕完)

▲배고프生에게 貴意는 짐작하엿사오며 讓渡하실 書籍名과 價格을 左記住所로 一報하시옵소서
大田私立賢文學院 宋鎭文

▲大正六年陰九月七日이陽曆으로 何月何日인지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시는분은感謝感謝하여기며 將來幸福을懇祝하겟습니다
알고저하는生

▲庚戌年(明治四十三年)陰九月 十九日은 陽曆으로換算하면 即 十月二十一日金曜日이올시다
黃海道鳳山郡舍人面安谷里乙谷 一讀者 星海

▲村先生二幕三回分 라디렐사 위一回分부터又四回分까지 切取하여 보내주시는분에게 相品이나 마 雜誌를一部를이겟사오니 諸者諸氏中에서 左記住所로付送하여주소서 咸北富寧邑 金澤俊

▲苑西町五生에게 答합니다 大正八年陰五月二十四日은 陽曆으로 六月二十一日土曜日입니다 (安城O生)

▲六月六日 讀者社交室 咸興 不知生에게 戊申陰二月十八日生이면 陽曆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日 金曜日입니다
平壤木訥

▲史學을研究하시는분? 古圖書古蹟를蒐集하시는분에게 奴文費, 古書雜合三百枚 近思錄全四卷類苑叢寶全一帙 七書言解, 宋子大全全一帙 簡帖十餘個 四角花瓶一個其他 有意하신분은左記住所로問議하야주시압
京城與農町五九六 申奇休方 歷史生

▲六月七日讀者社交室末尾의明治四十三年陰八月五日은 陽曆으로九月八日木曜이요、月建日辰은알어무엇한ㄴ가 庚戌年乙酉月丙子日이외다 六月七日平壤木訥

▲朝鮮一流漫畫家先生님께 顧하옵나이다 小生은 普通學校를 卒業한 男子이온대 一生所願이 漫畫가입니다 엇더케하여야 漫畫家가 될는지 下敎하심을 感謝하겟습니다

▲本人은 脚戱(씨름)을 좀배워보고저하오니(씨름)에 研究가 계신先生任은 좀가르처주십시요 運動場所며 時間은 先生任에便利하도록 하겟사오니 左記場所로 通知하여주시엿스면 感謝하겟나이다
住所京城府金湖町三五 鄭鬱永
峴底町四六の五○○ 崔南順

▲獨學生諸兄에게告합니다 小弟가正則國民中學講義錄을 廉價로 讓渡코저하오니 左記書籍을 求하시는분이 左記住所로 通知하시면 價格을알려드리겟습니다
一、國民正則中學講義二學年用六冊(定價三圓六十錢)
二、講義錄による勉强法(大日本國民中學會編)(定價八十錢)
三、南光社發行敎員檢定試驗受驗參考修身科大全(定價一圓六十錢)
黃海道松禾郡雲游面烏項里 尹相鳳

▲京城府峴底洞四六ノ四九八無名氏兄發賣하신다市早稻田中學講義全部(全二十五卷)은廉價면엽마나밧겟스며 最近것이라하오니 昭和멧年度것이며 或相當한書籍과交換하다하오니 書籍을엇더한書籍을要求하며氏名은天園町도구이신가를于先發賣하실價格부터正確하고도迅速히 社交室을通하야알녀주시요。

新刊紹介

◇勞動雜誌 八月號(內容) 廣田內閣の馬政一新政策で國民生活は安定するか? 勞動政治戰線は果して出來るか? 工場農村通信、其他 發行所 東京市四谷區七軒町二 勞動雜誌社 振替東京八二八○○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實業月報 七月號(內容) 朝鮮人の社會的移動, 滿洲に對し適用る商業法改動に伴ひ朝鮮貿易に及ぼす影響, 米內工業統計, 朝鮮米輸出仕向地方別調, 鑛產額調 等其他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樂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番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 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공쿠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皮膚病에 꼭발너야할 데-무水

皮膚病良藥데-무水가皮膚諸症에가장適藥인것은임의定評이잇는바다、벅가바야으로 皮膚病이跋扈猖獗할時季이니各家庭에皮膚病良藥데-무水一瓶을다備置하시라。

◉殺菌作用
皮膚病으로근질근질가렵더지안흔것은無數한細菌이寄生繁殖하야生하는것이고 그는濕氣와다수한것을조와함으로陰鬱한天候와人的가至한때에는기운이나서더가려운것이다。데-무水는人體皮膚에는조금도刺戟업고 安全無害하면서도適當한 殺菌作用을가지고、頑固한菌虫도殺滅됨으로가렵고 압흔것도낫고、菌虫의 殺滅됨에따라 永年된皮膚病도普漸完治된다。

◉消毒作用
菌虫이繁殖된 患部에는毒素를發生하야、고름이나오고、皮膚가變質되야서 그毒素가自然히血液中에들어가서 全身의健康障害를일으키는 일이잇스나 데-무水의消毒作用은毒素를 皮膚面에서分解消滅식히며 毒을體內로들어니지안는것입니다。

◉收斂作用
데-무水는 그特性인收斂作用으로 前述과如한 殺菌、消毒의 各作用과相俟하야 特히人體性能이自然히가즌 微妙한抗病自癒作用의 活潑敏速한 能의促進과서로 綜合되야서 皮膚病治의 目的을 到達하게한다。

特長
쓰리지안코、압흐지안코、보이지안코、냄새안나고、더럽지안흔外에 毒、痛痒을除去하야빨이낫게한다!

主治効能
●사면바리 ●음부습진 ●무좀 ●옴
●헐어른데 ●검버섯 ●頭瘡 ●溫疹
●부스럼 ●태독 ●面疱 ●가려운증
●痔肛門 ●부릇튼데 ●농가증 ●여드름
●옷은깨 ●부은데 ●面瘡 ●땀떼
●벼룩 ●모기 ●갈띡이 ●빈대
●毒虫 ●刺傷 ●皮脂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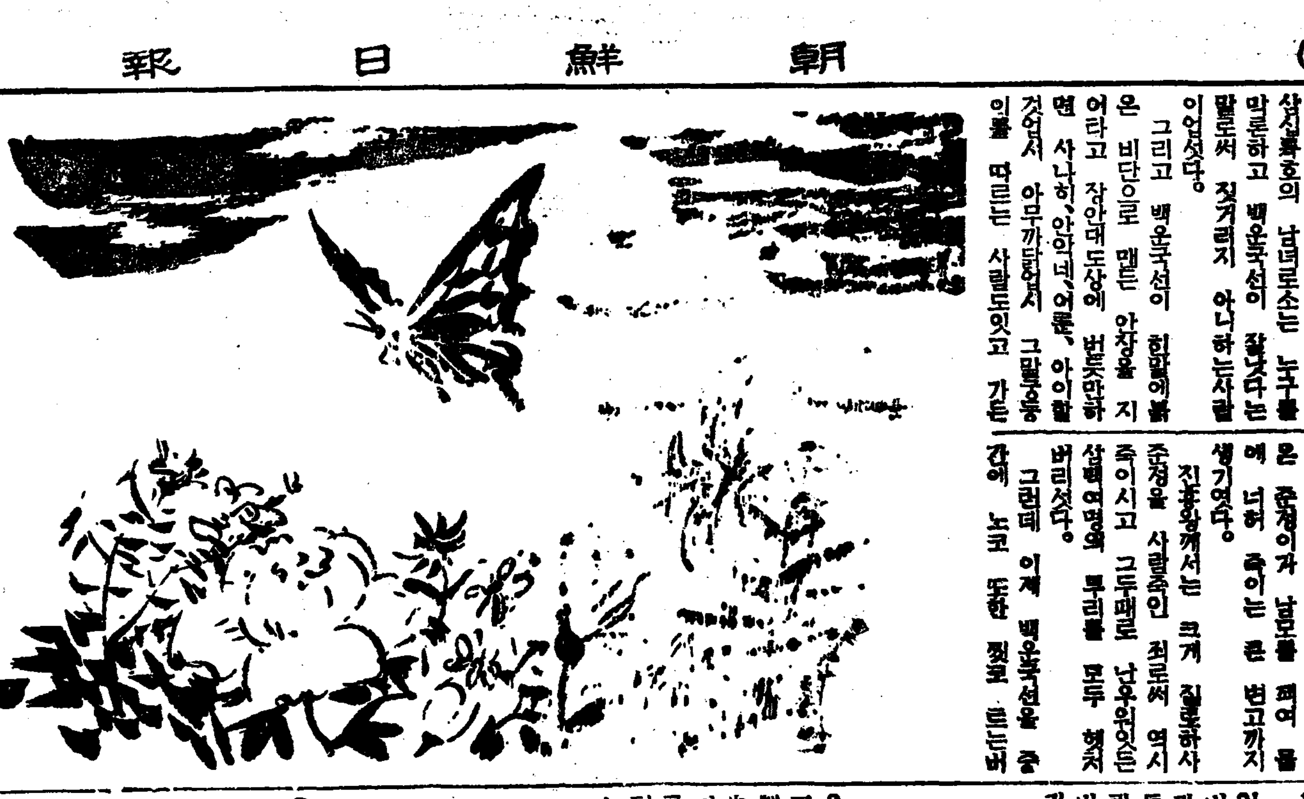
데-무水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送料內地六錢全國 著名藥店에서販賣함 萬一御品時는 代金添付로發賣元에注文하시라。即時送藥함

가까운곳의 하나무니데 라는 指定藥하시 가간 데-무水

發賣元 東京芝區田村町四丁目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一○○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二五五六番 振替大阪五○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렐나는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創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興奮、發毛誘成의作用을 適當하게하야毛髮을나게하고、脫毛를막고、禿頭病、若年禿頭、薄毛、脫毛等아무조록없이 不病하고、보기적게할뿐 은곳에효용하시라。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全國各藥店에잇슴
●詳細說明書는 前記東京藥院에申込次第進呈



巷談 布袋記 (八七)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련애 (五)

백운랑이 국선으로 뽑히기로부터 머리에는 비단 복(幞)을 쓰고 몸에는 이처럼 에순 오리로써 짠 소위 열다섯새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구리띠(銅帶)를띄고 발에는 삼신을 신어 국선복색을 차리고 나서니 그선풍도골(仙風道骨)은 누가 칭찬치 안흐리。

신라 서울안 삼십륙화랑 누구를 막론하고 백운국선이 잘낫다는 말로써 짓거리지 아니하는사람이업섯다。

그리고 백운국선이 한말에 붉은 비단으로 맨든 안장을 지어라고 장안대도상에 버듯하게 사나히,안악네,어룬,아이할것업시 아무까닭업시 그말굽등이를 따르는 사람도잇고 가튼

거름을 멈추는사람도 잇섯다。

『백운국선은 이나라의 신선이 아니오 천상옥계(天上玉界)의 신선!』

이라고 여러사람들이 떠드는소문은 제후소저의 귀에도 력력히 들렷다

『아아。백운국선께서 국선복색을 차리신 그풍신은 어떠하신고?』

하며 제후소저는 여러사람들이 백운국선을 칭찬하는 소리를들을적 마다 그 소문을 안 듯는척하면서도 그래도 그 조고마한 가슴은 남 모르는 깃븜으로 터질듯하면서 백운국선이 국선복색을한 그풍신을 보고십허하는마음이 간절하얏다。

백운국선의 좌우에는 다른국선은 물론이오 미처 국선이못된 젊은 사람들도 만히 딸엇다。

그중에는 전일에 원화(源花)가 되엿든 절대미인도 안호려니와 그중에 특히 버들아기(柳姬)、꼿아기(花姬)、비단아기(羅姬)、글아기(文姬)등은 백운국선을 둘러싸고 옥신 각신하는 시비까지 생기게되엇다。

원래 진흥왕께서 원화를 두신뜻은 암검과、산하사이에 벙으로써 자리에 누으나 피차에 아는사람이 업는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사 여러가지로써 그유감이되시는것을 풀어보실 방침을 궁리하시다가 필경은 며

재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령리한 네자를 뽑아 서로 노니는중 그혜택을 보게하야 나라에 동등하려한것이다。

그래서 남모(南毛)라는 미인과 준정(俊貞)이라는 미인을 뽑아서 원화(源花)라는 명칭으로 서로 친하게 놀며 여러사람의 행동을 알리게하얏다。

그런데 남모와 준정은 공연한 강짜가 생기어 서로 백죽대고 서로 짓고 틀다가 필경은 준정이가 남모를 꾀어 물에 너허 죽이는 큰 변고까지 생기엿다。

진흥왕께서는 크게 질로하사 준정을 사람죽인 죄로써 역시 죽이시고 그두때로 낭유위있든 삼백여명의 무리를 모두 헤치버리셧다。

그런데 이제 백운국선을 좇아 가에 노고 또한 짓고 틀는버

들아기、꼿아기、비단아기、글아기등도 모두 전날에 남모와준정의 패가되여 짓고틀든 녀자들이니 버들아기와 꼿아기는 남모의패가되엿든 녀자요 비단아기와 글아기는 준정의 패에 속하얏든 녀자이엿다。

그런데 그들은 백운국선의 아름다운 풍신에 모두 취하야 백운국선을 잇글어 댕길새 역시 버들아기와 꼿아기가 한패가되고 비단아기와 글아기가 한패가되어 이리땡기고 저리땡기게 된것이다。

그런데 버들아기와 꼿아기가 한때가되어지만은 버들아기와꼿아기사이에도 서로 백운국선을 독차지하려는 강짜가 숨어잇고 비단아기와 글아기도분명 한때이엇만은 역시 백운국선의 사랑을 홀로 바드려는 시긔가생기엇다。

그럼으로 백운국선을 차고도는 그미인들의 강짜싸움을 크게 구별하면 버들아기、꼿아기가 주장이된 한패와、비단아기、글아기가 중장이된 한패인 그두패가잇고 적게 구별하면 버들아기、꼿아기、비단아기、글아기의 네구별과 그밧게 그네미인의 무리가된 여러녀자의 패가 난우어서잇다。

그럼으로 백운국선은 그여러 미인에게 눈이 호리여 어느녀자가 더잘나고 어느녀자가 덜낫는지 우열을 구별할수가 업스려니와 만일 제후소저를 이저버리고 그들중에 추파를 보내다하면 어느녀자에게 보내야 할는지 어리둥절하얏다。

그러나 백운국선은 그여러미인중에도 이왕의 남모편으로는 글아기 버들아기、준정편으로는 글아기가 낫고 버들아기와 글아기의 마음에 사랑중에는 글아기가 마음에 사랑스러워 글아기의 따르는것을 반겨히 마지하야 주고십흔 생각이잇섯다。

나의行狀記 MGM의映畵 반·다이크의監督。主演에는 죤·크로포드요助演에는 볼라이안·에하누·광크·모간·아이린·마크마흔等

海外映畵消息

三六—三七年度 유나이테드作品

유나이테드·아—티스트社의 一九三六年으로부터 三七年度까지의 製作陣은 製作者十名作品은 最少限度三十六本으로 決定하고여기에 五本가량 增加시킬지도모른다고 發表하얏다 그內譯을살펴보면 꼴드윈作品七本 차—리 차푸링作品二本 픽포—드·러스키—作品一本 셀스닉·인터내쇼낼作品七本 알렉산드·코르다(런던필룸)六本 월터·웽자—作品七本 리라엔스作品一本 에리사베—스·벨크너—作品一本 크라이트리온作品一本 월터·듸스니—漫畵十八本等이라는바 決定된主要作品의 內容은 다음과가티한다

◆꼴드윈作品

『더—스워—스』싱크레아·루이스原作 시도니—·하버—드 脚色윌리암·와이러—監督 월터—·휴—스톤主演

『꼿니—·뽀이에듸—캇탄』主演

『빼앗기가진다』에드너·파—바原作 하바—드·혹스監督 에드워—드·아—놀드主演

『女子는 不良해질수잇다』 미리암·홉킨스主演

『사랑과戰爭』존·물더—스룬原作

◆픽포—드作品

『世界는나의것』후—벨·멈—리엘監督·레오·카리—로主演

『沙漠의花園』리차—드·보레스라스키—監督 마레—네·데—트리히主演總天然色

『꽃·수—야—늬—마—크·로원原作 드·아—놀드主演

『젊은아해를가지사나히』에드워—드原作

『주리아스·시—사—』 『幻影의世界』 『一萬이모다』 로—날드·콜—맨主演

◆알렉산다—·코르다作品

『렘브란트』 알렉산다—·코르다監督·찰스·로—튼主演

『로구업는騎士』 제임스·힐튼原作 마레—네·데트릿흐主演

『나는 크로듸아—스』 로버—트·그레—브스原作 찰스·로—튼主演

『暗夜行路』 미리암·홉킨스主演

『×夫人의離婚』 마—르·오—베론主演

◆월터·웽자—作品

『奇蹟의사나히들』 G、첼스原作 로—랜드·영主演

『歷史는밤에만드러진다』 샤르르 포아이에主演

『一九三七年의流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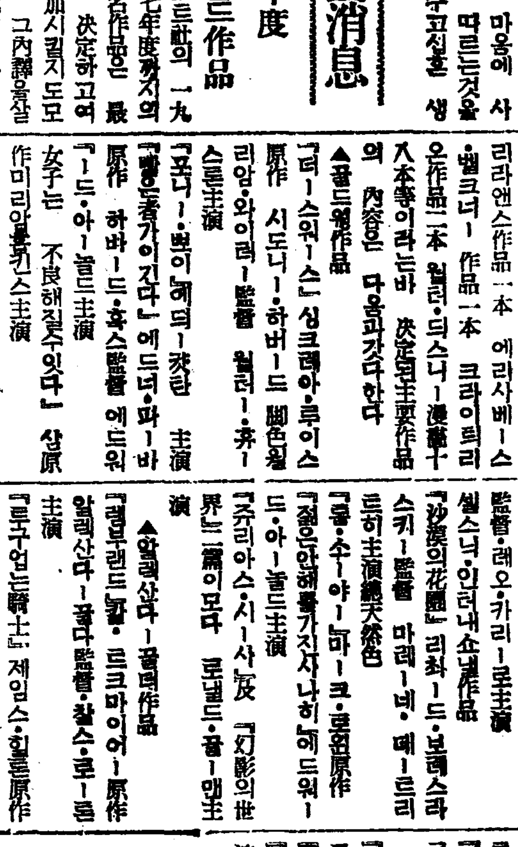
『三回勝負』 스펜서·트레쇼—主演

『女子는戀愛를 한번만한다』 總天然色

『沙漠의陰謀』 알프레드·바도슨原作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3=

白 權秉都
黑先 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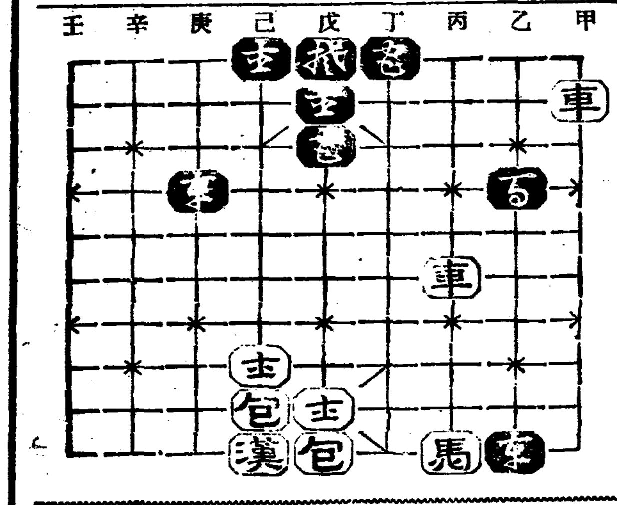
●二〇一 乙의二
○二〇二 丙의一
●二〇三 乙의五
○二〇四 庚의十五
●二〇五 辛의十五
○二〇六 丙의八
●二〇七 乙의八
○二〇八 甲의九
●二〇九 乙의七
○二一〇 申의五
●二一一 申의六
○二一二 己의九
●二一三 午의九
○二一四 卯의七
●二一五 乙의十三
○二一六 乙의十四
●二一七 甲의八
○二一八 甲의十三
●二一九 甲의十
○二二〇 寅의九

蔡極文氏評曰 白이 末端收局은 黑보다 有利하나 黑의 先得權이 優越함으로 白의 不及이 蔡狹中錄見되다 이로써보면 削造事業이 元動일까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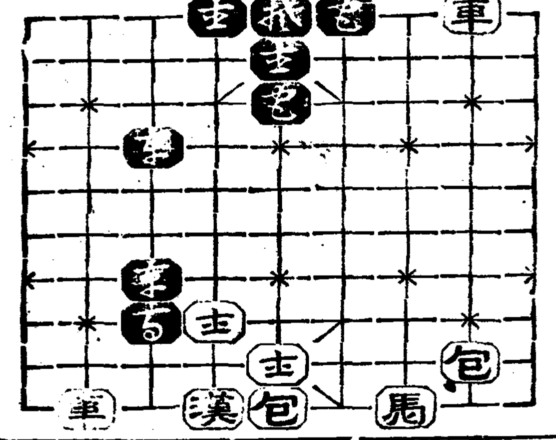
漢先手 減一兵 李在鳳 對 李英鍾

◀第八十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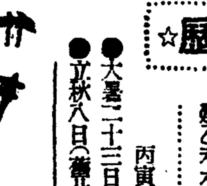


◀第九十手▶

甲二車—乙三
乙三車—乙七
丙三車—辛六
乙七卒—庚七
辛六車—辛十
乙四車—丁五
乙三車—乙二
丁五卒—戊七
己九包—乙九
戊七卒—庚八呼將



라듸오



十一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一、소낙비三兄弟…金泰晳作曲 二、고향하늘…朴泰作 〃 三、제비마중…金泰晳 〃 朴景姬 外實演兒童多數
◇同七時 經典解說 尹乙洙
◇同八時 常識講座(一) 米穀統制에 對하야 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三〇分 (東) 管絃樂과 피아노 피아노協奏曲 B프랫트長調… 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알레그로 피아노 레오니—드·크로이차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니콜라이시펠브랏트
◇同九時 라듸오、드라마〃新女性線〃一場 —配役— 愛…金仁淑 尹任鉉…그의아버지…李流星 金學沐…그의男便…李石元 貞淑…그의동무…金仁順 指揮 李一如 效果 朴松水 라듸오劇研究會
◇同九時四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새타령 崔鳳 鼓手 池龍九
◇同一〇時四五分 올림픽大會放送〃八百米繼泳決勝、女子二百米平泳決勝〃(實況)(第一放送에依함)
◇同一二時

第一放送

◇午後六時 童話(全中)崔南善
◇同七時三〇分 (大) 講演 吳祐吉
◇同八時 (東) 라듸오、코메듸 藤縣飯司、小百合葉子外
◇八時三〇分 (東) 피아노管絃樂 피아노、레노니드、크로이차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九時 (東) 浪花節 早川燕平

十二日(水曜)

◇午前零時五分 古談 李鼎翊
◇同六時三〇分 童謠 뫼추라기의 李鍾泰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八時 農村講座(一) 中央高普 安在駿
◇同八時三〇分 雜念外 一、雜念 二、六字백이 三、農打令 四、개고리打令
◇同九時 獨唱 一、思友…朴泰俊作曲 二、먼산 바라보치아…마리오作曲 三、산넘어온동아지…朴泰鉉作曲 四、엇지하려나 내사랑아…朴泰元作曲 五、알로하오이…하와이民謠 伴奏 李興烈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어느女子의一生〃柳寅成
◇同一〇時四五分自 同一二時〇〇分至 올림픽大會實況〃八百米自由型決勝〃〃女子百米背泳〃(第一放送에依함)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英語會話講座 H·W·존스 O·K·빼커
◇同一〇時三〇分 (東)家庭講座 弘田龍太郎
◇午後零時五分 落語劇 小倉柏葉 片山利友外
◇同六時 (東)이야기 鎌田彌壽治
◇同六時二五分 (演)趣味講座 渡邊素夫
◇同七時三〇分 講演 篠崎哲四郎
◇同八時 (東)室內樂 末吉雄二外
◇同八時三〇分 (名)凉味通信 納凉列車
◇同九時 (東)宮薗節 宮薗千之

十三日(木曜)

◇午前七時五〇分 (大) 野球試合實況 —甲子園球場으로부터『第二十二回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午前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復習時間 市川榮三
◇同八時 農村講座(二) 安在駿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二、數大葉 三、界面頭擧 四、界面頭擧 五、弄 金蘭珠 薛明祚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流行歌 一、新農夫歌 …金駿泳作曲(姜、金) 二、港口의哀想…同上(姜) 三、沙漠의눈물…同上(金) 四、名勝의四季…同上(姜、金) 五、님이여잘잇거라…同上(姜) 六、가시면못오시나…同上(金) 七、荒野에해가저오리…同上(姜金) 姜弘植 金楚雲 伴奏 DK管絃樂團
◇同九時三〇分 자진배따라기外 一、자진배따라기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병조난봉가 五、개성난봉가 金順紅 金蘭香

第一放送

◇午前六時 三〇分(東)速成獨習講座 登張信一郞
◇同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松岡修三
◇午後零時五分(東)三曲天笠手藝
◇同六時二五分(富)趣味講座 關屋五十三
◇同七時三〇分(仙) 講演
◇同八時五〇 (大)舞臺劇
◇同八時五〇 (東)詩吟
◇同九時 長唄 山田積善
◇同九時二〇(大)朗讀 杵屋美乃志外

☆曆☆

八月十二日(水) 陰乙未六月小(廿五日)
丙寅·火·參·破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今こそお肌の手入時

只수이야말로살결에손질할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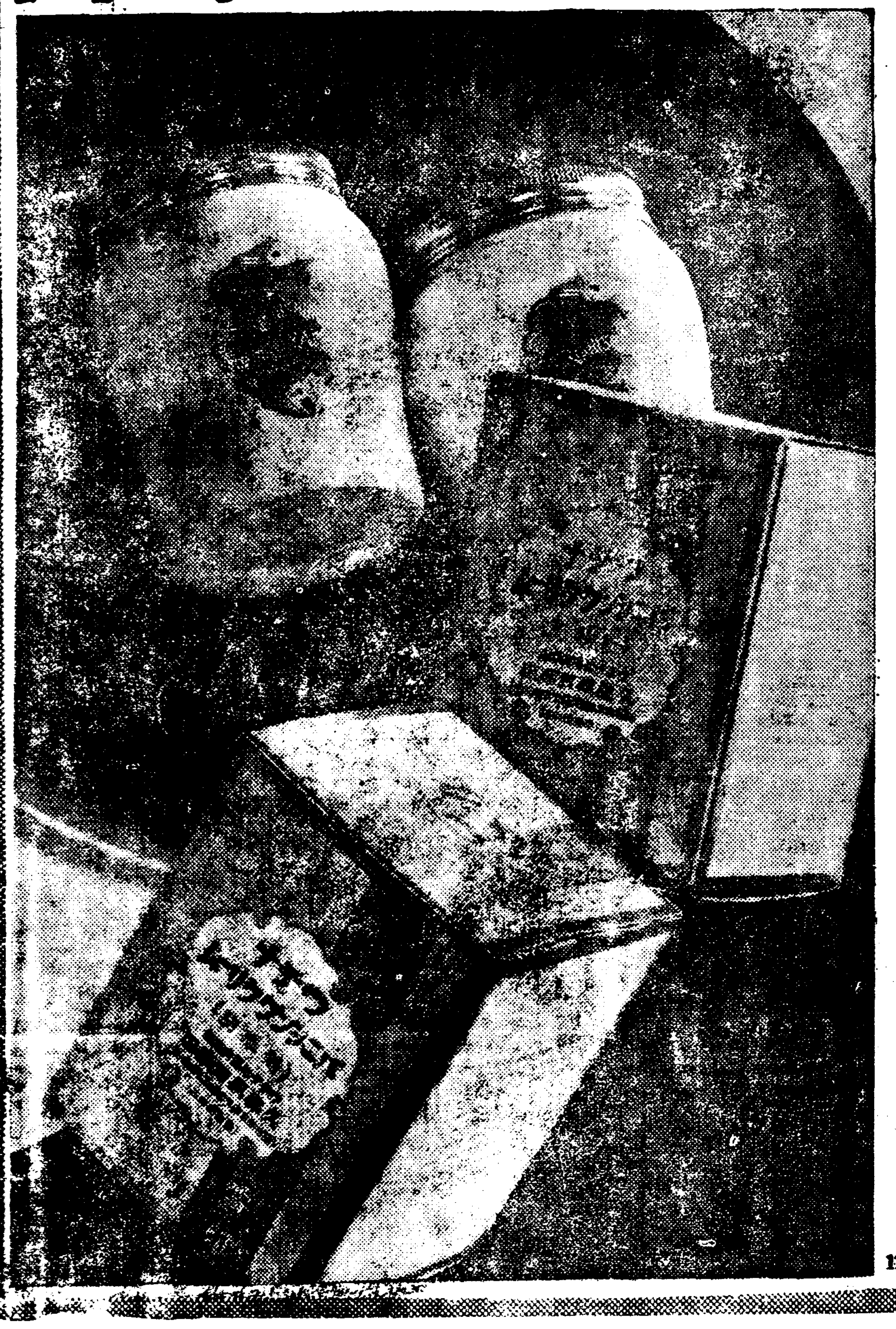
紫外線을緩和하야 潑剌하고아름다운若肌!

紫外線이가장豐富하고皮膚의新陳代謝가旺盛한只今이야말로살결에손질할때입니다……살결을爲하야조흔紫外線을雪印으로써充分히利用하야아름다워집시다……

醜한볏께름、기미의原因이되는무서운直射를막는ウテナ雪印이잇서야비로서여드름하나업는부드럽고 아름다운若肌가되는 거십니다……

紫外線을有効케하는雪印、雪印의榮養作用은紫外線으로써훨신强하게하며一年中의美肌를短時日사이에培養케합니다……

볏께름을업새며、여드름을豫防하는데、白粉이밀리지안는美肌를培養하는理想的인바니싱은ウテナ雪印以外에는업다는定評實質의勝利올시다……



純白無脂肪性 五十三錢 六十四錢

ウテナ雪印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테나 바니싱 크림

靑春美에빗나는雙頰을맨드는아름다운色!

ウテナほほ紅 三十錢
우데나연지

ローズ オレンヂ マンダリン

11.8—6.2

本舖 久保政吉商店

安東縣稅關吏의 朝鮮人虐殺事件

新義州의 輿論이 沸騰

【新義州】 안동세관리의 조선인밀수업자 대한참사건은 현대법치국(法治國)의 인민으로 도저히 상상도할수업는 극단의 야만적행동으로 그악착 참혹한사실은 실로 신인이 공노치안흘수업다 지금그당시세관리의 칼과몽둥이로 무수한매를 맛고 물에떠러젓다가 요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어나온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그당시의 광경은 다음과갓다

"생각할사록떨리는 殘虐한當時光景" 某九死一生의回生者談

금월사일 오후두시경 생활난에 부대겨 할수업는 밀수자 일백삼십여명은 신의주 제이수문(第二水門)강언덕에서 약사십미돌되는곳에서 각각조선목선세척에 난호아타고 강을 건느려할즈음 돌연 동류로부터 총소래가남으로 돌이켜본즉 세관감시선에 무장한 세관리가 총과칼과 몽둥이를휘둘으며 달려들엇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엇절줄을모르고 이배로 쫏기고 저배로 쫏기고하는동안에 감시선(중국선)은 목선복판을 떠바다 배가기우러지자 세관리들은 배에뛰여나려 칼과도끼로 사람들을함부로찌르고 물로 차너헛습니다 또도끼와 칼로마저 죽어넘어진것을 그대로 물에차너키도하얏습니다 일백삼십여명이 한거번에 물에빠저 허우적거리며 요행널조각이라고 붓잡으려는것을 세관리들은 총위로부터 손을 도끼로찍어 죽게한것도 잇섯습니다 그여때 매목을 지히든 배도 잇섯스나 그외통에 놀려 거저세관리가 도못하고 잇는동안에 또다른 세관배한척이와서 를 에뜬배까지 모다 거저어가지고 밀수목선을 끌고갓습니다 그후서야 요행히 매목을 붓잡고 한절반가량은 살어나왓는데 살어나오지안흔사람들도 상처를 넘지안흔사람이 업습니다 만주국관리는 조선사람을이러케 막죽여도 아모상관이업습닛까? 운운

눈물업시못볼— 家族들의哀痛

補助바더屍體는埋葬

화상을당한 조선인 밀수업자들의 시체는 긔보와가티 신의주제이수문 강언덕에 느러노앗섯는데 처음이틀동안은 겸시하노라고 그다음은 장비가업서스물다섯개의 시체가잇는 부근일대에는 음산한귀긔(鬼氣)가 떠돌고 한집의기동으로밋든 자식과남편을 일흔배여명 가족들은 망곡애통으로 날을보내며 그처참산비의 광경은 사람으로하여금 바로볼수가업게하얏다 더욱 이당시 세관리들의 잔인한학살을 여실히말하는 시체들의 상처는 참아눈으로 볼수가업섯는데 김정옥(金貞玉)(二〇)의시체는 칼로형난상처가 수십곳이며 백상두(白斗)는 갈비스대가 부러젓고 김종명(金鍾明)은 얼굴이절반업서젓고 압가슴에몽동이로 마즌자욱이 려연하얏다 그밧게 죽은사람들은 모다 이십내외의 장정들로 아모리 의복을 넘엇다 할지라도 몸에상처가 업섯스면 모다 살어나왓슬사람들이다 그리하야 이시체들은 이사람들을 부리든 상점주인들의 보조로 지난칠일까지에 겨우매장을하얏는데 이죽은사람들은 모다 그날버려 그날살지나든 사람들로 이날도 량식이떠러저 하루버리를하려고 나갓든사람도 잇다한다 그러하야 이죽은사람들의 가족 백여명은 모다 굶고안저잇다고한다

安東서犯人取扱은 法治朝鮮의侮辱

◇憤慨한某氏談

안동세관리가 밀수자를 학살하는것은 거의상습적으로 되여잇는형편이데 작년가을에도 무도한 참살사건이 잇섯고 또평시에도 맹견과 총기를 사용하야 인명을 상해하며 부녀자의 의복을 벗기고 수욕을 주는등 인도상 묵과할수업는 만행을감행할뿐아니라 밀수와 하등관계업는사람에게까지 이와가튼 행동을 감행하는것이 거의습관이되여 왓는바 이번의 참살사건도 상습적만행의발로이다

이와가튼 사건이 니러날때마다 당국자는 무사주의?로 우물주물하는것이 례사인데 이에대하야 신의주변호사단에서도 궐긔하얏거니와 극도로 분개한모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분명히조선땅에서 만주국관리가 조선사람을 학살하얏는데 아직까지 당국자가 엇지하야 그범인들을 구인치안코잇는지 알수업습니다 안동경찰서에서 그들을 구인하야다가 취조를하야 할터인데 조선은 법이업습니까? 이는법치(法治)조선을 무시함이외다 우리민간측에서도마땅히 인권보호의 립장으로 어떠한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진정이라도 하여야될줄로 생각합니다 밀정번가리 또 예심에붓치는니 사회를시키느니 하다가 우물주물하고 그만둘모양가튼니 신의주사람이야 어듸살앗다고할수가잇소? 운운

그리하야 방금신의주에서는 시민을 망라하야 관계각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준비중이라한다

冷害地高地帶에 三四割增收快報

長霖에萎縮되엿든作物도蘇生

災民겨우愁眉를半開

【咸興】 련사변행해지인 함남도산지대 신흥(新興)군장진(長津)등 제군은 면칠전까지 게속된 긴장마로인하야 다소의랭해(冷害)의근심이 업지안엇스나 근심되는 장마도 개여 산지대농작에 가장적당한 염열(炎熱)만내려쪼여 다소 원숙하얏든 전작물도 이삼일간에 회복되야 보기조케 무럭무럭 자라고잇다고한다 함남도 농무과에 들어온 보고를보면 산지에 전작물 연맥(燕麥) 속(粟)등은 대개가 평년작보다도 삼할내지사할의 증수를 예상할만치 순조로 나아가며 오래동안 염에발을너어보지못하고 굶주리든 재민들도 겨우수미를 펴게되얏다 그리고 신흥군(新興郡)에서온 보고를 보면 도작(稻作)은 각면을 통하야 일할내지 삼할까지 증수가 확실하며 속(粟)도 모다 삼할 대두(大豆)는 상원천(上元川)을 제하고는 모다 삼할증수라고하는데 산지대 전부가 이와가티 수년래에 보지못하든풍등(豊登)을예상하게되엿다

叺檢查員急死

【水原】 곡물입검사인천지소남양파출소근무(穀物叺檢査仁川支所南陽派出所勤務)량영금(梁泳金)씨는 지난십일 수원군마도면석교시장(水原郡麻道面石橋市場)에서 입검사를하기 시작하든차 참외를먹은후 이여서 도적심을먹고 별안간복통이 나다하야 간신히 천세규(千世奎)씨집으로인도하야 누이자 그대로아모말한마디업시 사망되엿다한다

朝鮮××軍 撫順市를窺視

【撫順】 무순경찰서(撫順警察署)에서는 지난이일 무순현 동사(東査)부근에서 조선××군계통의 이십칠팔세된 조선청년두명을검거하여가지고 엄밀한 취조를계속하다가 모종대사건에단서를 잡게되자 동서에서는 크게 긴장하여서원들의 경찰 석회(警光石灰)적활동을보게되엿다는데 이제사건의내용은 동서에서 극비에 부치고 잇스므로 자세한 진상을 알수업스나 모처에 도달한정보를 긔자가탐문한 바에의하면

무순현하(撫順縣下)에 잠입한 청산호(靑山好)천량(天良)을 두목으로한 일백여명의 도변가운데는조선××군다수가 합류(合流)되여가지고 방금 이십여명은 무순시가에서 가장가까운 만달옥(萬達屋) 룡봉향(龍鳳坑) 탄련(炭連)등지로 회해하면서농민동포에게군자금(軍資金)을 강요하면서가지수단으로 농민을협박하여오다고하며또사십여명은 영반(營盤)에잠복하고잇스면서 무순시내에잇는동포들의 큰상점과 정미소를 습격하고서 군자금을강탈할계획으로 시가부근으로배회하면서 시내잠입을 꾀하고잇다고한다

黃海蹴球聯盟戰

榮冠은載寧軍에게

【安岳】 스포-츠集團으로 全朝鮮에 唯一인 黃海蹴球聯盟戰은 年一次에 年中行事로 每年八月中으로 巡回開催케되엇는데 第六回를 마지하야서는 安岳이 當番이되어서 豫定과가티 지난 八月八、九、十三日間 安岳運動場에서 黃海體育聯盟主催와 安岳蹴球團後援으로 開催되어 團體中 海州軍은 昨年信川에서 大會期開催地問題로서 遺憾히도 聯盟에서 脫退하고 沙里院軍은申込까지 하고도 中間故障이잇던지 當日까지 出戰치안허서 棄權으로 알고는 멀니延安、殷栗、松禾 長淵 載寧 信川 安岳八個團體가 모히어 리-그式으로 激戰을하다

第一日(八月八日)午前九時에會長金元亮氏의 開會辭가잇슨다음 諸種으로 京城李永書氏의 注意가잇고 니어서 安岳 信川에對戰이 버러젓다 上半에安岳軍一點得하고 下半에信川이 一點을再得하야 비기고말엇다 다음殷栗 載寧對戰에 五對一로 載寧이 勝利하고 그다음松禾 長淵對戰에 一對○으로松禾軍이 勝利하고 延安、信川對戰에 또二對○으로 信川軍勝利 長淵殷栗對戰에 一對三으로殷栗勝利 松禾安岳對戰에는 三對○으로 安岳軍勝利로햇다

第二日(八月九日)午前十時에 처음으로 松禾殷栗對戰에四對○으로 殷栗勝利 그다음은長淵安岳對戰에 三對○으로 安岳軍勝利하고 또그다음 載寧延安對戰에는 一對○으로載寧軍得勝 그다음 長淵載寧對戰에는 三對○으로 載寧軍勝利 松禾延安對戰에는 一對一로 비기고 말엇고 殷栗、安岳對戰에는 ○對○으로 또비기고 載寧、信川對戰에 一對一로 비기고長淵、延安對戰에는 一對○으로 長淵軍이 得勝하고막젓다

第三日(八月十日) 마즈막날이니 대강한 成績을 豫測하고는더욱 場內가 緊張한가운데 午前九時半에 開戰할것인데 雨天으로 因하야 午前十一時부터야 開戰케되엇는데 미리 落第이된 延安軍과 長淵軍은 棄權을하고말어서 처음 松禾、信川對戰에 二對一로 信川軍이 得勝하고 殷栗、信川對戰에는 三對二로 信川得勝하얏고 載寧、安岳對戰에는 一對○으로 載寧軍이 勝利하고 松禾、載寧對戰에는 마즈막 勝利를하고 點數를計算해보니 載寧軍이 十二點、信川軍이 十點、安岳軍이 八點으로 一、二、三位까지 定하고 同日 午後四時에 雨中閉幕하엿다. 以上三日間의 盛事는 海西一帶에 처음보는일로 圓滿히맛치엇다.

地方人事

▲安鍾植氏(平壤力技研究所師範) 今般夏令會講師로 來宣中退宣 ▲秦在鶴氏 (同助師) 同上

待期의정어리는왓다!

죽은듯이고요하든 咸北沿岸에生氣

清津서만一日萬餘樽을陸揚 凶漁의쓰림도遂解消

【清津】 함북연안일대에 정어리가 나지아니하야 관계어민들은 물론이고 각공장은 휴어로 긔게를쉬게되고 그에따르는 수만로동자에게도 직접영향이미처 그들도 불안과공포를 늣길뿐아니라 함북연안주민 대다수의 사활문제를좌우하는 정어리가 나지아니함으로인하야 청진지방에서는 류랑의길을 떠나가는사람도 업지안허 정어리로인한 불경긔는 전함북을습격하야 각방면으로심대한 영향을주어 전주민의 마음을 흔드러놋든 문제의정어리는 지난삼일부터 잡히기시작하얏다 오일에는 청진남어대진(漁大津)등지에서 삼만여통을잡엇다하며 오일부터 본격적으로잡히기시작한 정어리는 청진서만 잡는것이 매일 만통이상이라한다 륙, 칠, 팔일에도 매일 만통이상을 부두에 풀러나리다 이와가티 잡히기시작한 정어리는 청진부두에서 작어인부의부족으로 썩어나는상태에잇스며 흉어니 불경긔니하든말도 한낫옛꿈으로 도라가고 이제는흉어불경긔의 말조차 들을수업다한다 흉어에 공포를 늣기든 어민들은 희색이만면하야 동분서주하며 어찌할바를 아지못하고 분주히 덤비는것은 참으로불경긔와흉어를완전히퇴치한긔분이잇다

長湍支局後援의 全朝鮮庭球戰

參加申請遝至

【長湍】 장단정구구락부주최인제삼회전조선정구대회는 본보장단지국후원하에 오는십륙일에 장단정구구락부 코-트에서 성대히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 경성(京城)을 비롯하야각지에서 참가신청이 답지하는현상임으로 벌서부터 인긔는 고조되여 동대회는 실로장관의성황을 예고하고잇다한다

列車醉客을轢殺

【平壤】 십일오전여섯시오십분경 승호리(勝湖里)를 출발하여 평양을 향하든 □백사십일호렬차가 사동역(寺洞驛)부근에서 술이 취하여 선로우에서 끈히자고잇든 사동십부번지 로동 최윤긔(崔允基)(三五)를 치여죽엿는데 좌우다리가 끈허젓다고한다

問題의崔相玉 體刑一年判決

【咸興】 함흥사회에 일대파문을 던저준 원함흥부회의원 산업주식회사장인 최상옥(崔相玉)(四五)에게 대한사긔배임죄명의 언도는 십일오전열시부터 함흥법원에서 열고 미전(米田)판사로부터 체형일년(미결구류백일통산)의판결이잇섯다

冷害民救濟義捐 募集成績極不良

五個月間에모흔것僅萬七千圓

災民一人當三十錢

【咸興】 련상개념모진 냉해(冷害)로인하야 전혀긔아의쓰라림에서 헤매고잇는 함남도산지대 십오만 생령을 조곰이라도 구제하야볼가하고 지난이월초순부터 사회사업 협회 함남지부에서 주체가되야 널리함남도내에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고잇든 해민구제의연금은 지난칠월로써 마감하고 지난칠일재삼차로 장진(長津) 신흥(新興) 단천(端川) 삼수(三水) 갑산(甲山) 풍산(豊山)의 여섯군에 팔천오백원을배부하야주엇다는대 모집총액은 일만칠천삼백 십사원이엿다 하며 그돈으로써 구조바든인원은 칠만구천이백팔십사명이며 일명에게겨우삼십전내외간으로 홍로점설격이나일시구급은되얏다고한다

德山築港陳情

六百名捺印으로

【三陟】 수천주민의 년래의 숙망이요 중대 현안이든 삼척군 근덕면 덕산항(三陟郡近德面德山港)축항문제는 그동안 지방유지가 부단의 운동을 하여왓슴에도 불구하고 의연 칠체상태에 빠저잇섯슴으로 연안십만원의 수산고를 가지고잇스면서도 강대 계호의 어업을할수업스며 강능영림서에서 대규모로 경영하는 마운천(麻雲川)목재운반의그 동차는 연산만척체(尺締)의 대량의 반출을 하나마 향만의시설이 불완전하므로 대선박의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야 일시에 대량의 적출을 할수업서 영림서에서도 심히우려하는중에 잇다 원래 덕산방은 천연적양항구로 아모리 불풍이불려와도 파도가일어날여러는 전혀업스며 천구(川口)부근 외에는 대개 수심이 깁다 그러나 아직 축항문제에 관한 구체적 의향을 듯지못한데 삼부지는 륙백사십명이 날인한 진정서를 작성하야 김수선 신동근(金洙善 辛東根)량씨가 휴대하고 엄마전상도하야 도와 총독부 삼국을 방문하고 진정하엿다는바 당국에서도 호의를가지고잇섯다고한다

年產八百餘萬圓

鑛區四百餘個所에

黃海道內鑛業界活況

【海州】 근년에 일으러 비상히 노파가는 광산열(鑛山熱)에 따라 황해도 지방의광산업은 자못 활긔를띄여 광산구수나 광산액(鑛産額)이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잇다

황해도 상업과에서 조사한통계를 보면 소화십일년일월일일 현재의 광주총수는 사백삼십구개소이고 총면적은 이억칠천칠백 십팔만칠천칠백칠십구평인바 이것을 소유자별로보면다음과갓다

	口數	面積坪
朝鮮人	二六九	一五〇、〇九五、二八〇
日本內地人	一六九	一二六、一三三、九四四
外國人	一	九五八、五五五
計	四三九	二七七、一八七、七七九

그리고 소화십년중의 총광산액은 팔백이만팔천륙백륙십오원이란 거대한 액수에 달하는바 중요한광산물들은 삼백사십만원을 돌파하는 금은광(金銀鑛)이 수위이고 일백칠십여 만원의철광(鐵鑛)금광(金鑛)텅그스텐 유연탄(有煙炭)아연단(亞鉛鑛)등의순서인데 아제광석별로 광산액을 적으면 다음과갓다

金銀鑛	三、四八九、五三〇圓
鐵鑛	一、七四五、二六九
金鑛	八九九、九八〇
텅그스텐鑛	八三三、一二六
有煙炭	八一三、六九八
亞鉛鑛	七二、六九〇
砂金	四六、六五九
硅砂	四四、六一〇
螢石	三六、一一一
重晶石	二八、三一四
銀鑛	一二、九〇〇
鱗狀黑鉛	四、七五二
高嶺土	二、〇二〇

長箭湖埋立 近近工事着手

【長箭】 다년간숙망하여오든 장전호 매립공사는 중촌조(中村組)에서 이십구만팔천원에 락찰하야 불원간 긔공할터인데 수심이삼메돌 광이 이십메돌되는 가공교(架空橋)를 가설하야 사십돈이하의 선척이자유로 출입하게되며 그호수면적은 일만오천평이며 매립지평수는 오만오천평이라한다

宣川記者團의 納涼모임盛況

【宣川】 선천긔자단(記者團)주최 재신문긔자 납량의 모임을 지난구일 오전 십시에 선천 명소 동림 폭포에서개최한바 이날에 참가한 인원은 십이인으로 가진 재담 오락 유흥등으로 오후 오시에원만산회하엿다

新京車輪會創立

【新京】 대신경의 약진건설에따라 현재신경의 조선인자동차종업원이 그수가오백여명에 달하고잇는바 그들의서로친목을 도모할기관이 아즉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든바 지난팔일하오팔시 조선민회루상에서 차륜회창립총회를개최하엿는데 그들은 다가튼길에가튼기술로 가튼활동을하고잇는만큼 일반사회에서는 큰 긔대를 가지고잇다는바 회비는 매월오십전으로하고 선임된간부는다음과갓다한다

執行委員長 朴連植 委員 金鎭律 張鉉璡 朴鐘鄕 崔炳述

支離한水飢饉!

平南農村地帶에는

아즉도雨量이不足 各水組貯水地枯渇에直面

【平壤】 십일아침 평양지방에는 삼십미리의 우량을가진 리우가 쏘다저 지독스런든 더위를 일소햇다 우긔에드러 칠월에 멧차례의 강우로 물긔근을 당하든농촌에는 완전히 회생하는 원긔를주입하엿스나 팔월에드러 우량이 적기때문에 이앙못한 백답이구천정보에달해서 도당국으로서는 가을의 구제책을 강구하고잇거니와 수리조합구역에는 저수량(貯水量)이적어서 칠월말현재로 각수리조합 저수지의 저수량은 ▲大同七尺五寸▲江西五尺八寸▲平安八尺▲順南十一尺▲長水院二十一尺▲慈山九尺五寸으로 순남과 장수원을 제외한 각수리조합은 금후 일회의급수를하면 물이전연 업서지게되여 물긔근은 여전히 해소되지안코 계속된다 이래서 아프로 십일전후하여 이백미리의 강우가업다면 수리조합 몽리구역내의 벼농사가 말못될 현상이라한다

朴永夏等三人 童謠集을刊行

【元山】 소년문예에 크다란뜻을가진 원산의 박영하(朴永夏)군과 회녕(會寧)의 한죽송(韓竹松) 채택룡(蔡澤龍)등 삼군은이번에 삼인동요집(三人童謠集)을 간행한다는데 이것은 조선으로서는 첫시험이라고한다 그런데 전긔박영하군은 과거칠팔년간을두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신한 조흔글을만이 발표하얏는데 작년에도 조선문단에 동요를투고하야 당선한일도 잇다고한다

元山은依然凶漁

數千勞働者困境

勤勞大衆의購買力의減退로 商工界도閑散其極

【元山】 물까는 작년보다 이할내지사오할이 앙등하얏슴에불구하고 로임은 그대로 요착하야잇서 일반근로계급들은 생활상 수지의 균형을일코 비명을 올이고잇는때에 원산은 희유의흉어로 수천로동자들은 일자리를 일코 매일 할일업시 어항부두를 배회하며 창백한영양부족의 얼굴에 생활난의 근심만 더가하고잇다 이러케 수개월동안 고등어(鯖)정어리(鰮魚)등 원산수산물중 대종되는 고기가 잡히지안해서 원산어항은 문자그대로의 수조락만한 쓸쓸한 분위긔에 싸여잇서 원산의불경긔를 반영한듯한감을 갓게하고잇다고 한다 그리하야 원산의 폐장인 어항의호흡이 부진함에 일반대중의 구매력이 감소하여저서 원산의상공계는 흥정이 중지된상태에 빠저잇다고한다

俄然南下의形勢

端川群仙에도豊獲

每日千餘樽內外陸揚

【咸興】 흉어예우든 함남도연안에 정어리의·대군(大群)이 몰여와다 함남도수산계에 도달한 정보를보면 일단연해주(沿海州)방면에 몰여가든 정어리(鰮魚)는 해류를따라 점점남하(南下)하고잇는중인대 이미 함북(咸北)에서는 큰풍획도 잇섯고 잇스며 함남도에서 북부의단천(端川) 군선(群仙) 신포(新浦)방면에는 매일천통내외가잡힌다 그리고 신포(新浦)압 마양도(馬養島)부근 십삼해리내지 십오해리되는 해안에는 수업는정어리의 무리가 몰여잇다는 북양환(北洋丸)의 소식도잇고하야 침체하얏든 연안에는 다시금활향을 띄우고잇다

自動車電柱衝突 妓生等重輕傷

【平壤】 구일오후 다섯시십분경 영성(永盛)택시-(평남일천사백오십오호)에 기생서연선(徐娟仙)(二〇)과 조금자(趙錦子)(一七)의두명을실고 문정대성관(大盛館)을 출발하여 경상리(慶上里)장경관(長慶館)에 향하든중 운전수리문영(李文榮)(二五)이 조종하든것을 대성관주인강성운(姜聖雲)(三五)이 가로마타서 조종하다가경제리(經濟里) 동일관(東一館)부근 전주에 급격히충돌하는바람에 기생두명은 얼골기타에 치료이주간이상을요할 중상을당햇고 강성운과 리문영도 치료십일간을 요할 부상을바닷다

馬山法院支廳管內에 不動產移動頻頻

今年드러萬餘件接受

【馬山】 최근부산지방법원마산지청(馬山支廳) 관내에는 부동산의동태(不動產動態)가 날로빈번하야 동지청등긔부(登記部)통계에 의하면 산, 토지, 가옥등의소유권이전 흥은 저당말소등과 신청등이 금년들어 벌서 일만이천건이나 접수되엿다는데 그에 소비된 인지대(印紙代)만이 륙만사천여원이라하며 압흐로도 더욱 증가될것을 예상하는바라 한다

平壤
第一回 京平水上對抗戰
△時日 八月十六日午後一時
△場所 平壤府營풀
◇主催 京城水泳同友會 平壤水泳俱樂部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白川
第一回 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六兩日間
△場所 白川호텔球場
◇主催 白川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白川支局

長湍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六日午前十時(雨天順延)
▲場所 長湍庭球俱樂部코-트
◇主催 長湍庭球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長湍支局

愛慾의彼岸 【73】

李光洙 作　金康穆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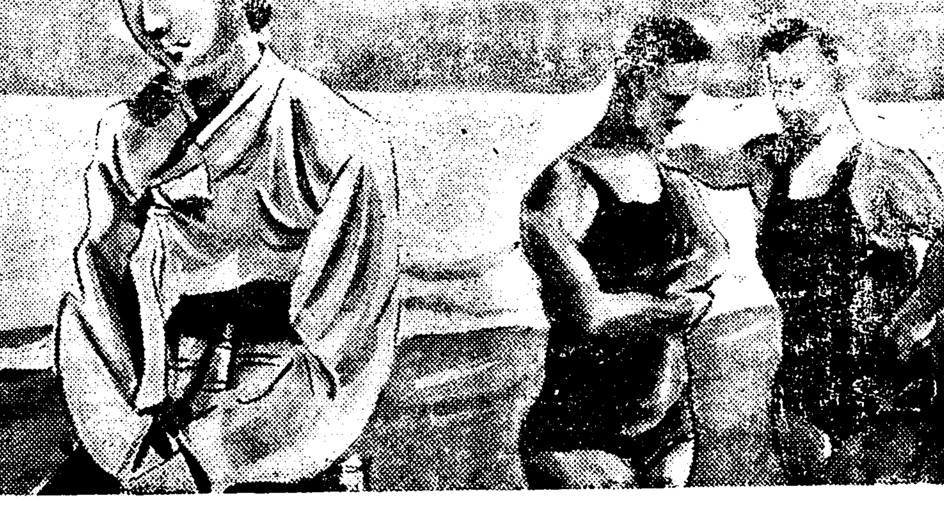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혜련은 준상이가 무슨말을 더하고시퍼하는 눈치를 알면서도 쌀쌀한 인사말을 던지고는 저편이 답례도 하기전에 빠른걸음으로 것기를 시작하엿다.

준상이는 무안하여서 혜련과 다른 방향으로 걸엇다. 혜련이가—그러케 제게 대해서 정다운 생각을 가지고 잇던 혜련이가 무슨 까닭으로 이러케쌀쌀하게되엇슬까 하면서.

실상 임준상의 혜련에게 대한 사랑은 결코 뜬 사랑은 아니엇다. 혼인까지 하여도 조타는 정도의 사랑이엇다. 요새청년의 사랑으로 혼인을 목표로 한다면 어지간히 참된 사랑일 것이다.

준상은 무론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일에는 경험업는 사



람이 아니엇다. 그의 준수한 용모와 조흔 목소리와 또 대학생이라는것과 게다가 언제나깨끗하게몸을 거둘만한 재산과, 그리고누가 보든지 실여아니할 그의풍채와 언어동작이 젊은 여자의 눈을 끌기에 족하엿기때문에 혹은 동향에서 온 여자들, 혹은 친구의 누이로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도 한둘만이 아니엿고 그가 한두번 허리를 안아보고 키스쯤 해본 여자는 이로 다 꼽기도 어려울만 하엿다. 만일 준상이가 원하엿더면 여러 여자의 몸까지도 범할수가잇섯슬것이지마는 그가 예수교회에를 다닌다는 생각과 또 그의 번쇄에 대한 용긔의 결핍이 그로하여곰 여자와의 관계에 일종의 경계선을 굿게하여서 아직도 동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상치아니하게 하엿다.

준상은 혜련에게 대하여서는 열렬에 가까운 사랑을 느꼇다. 그가 경주대 솔밧테서 혜련의허리를 안으려한것은 결코 희롱으로서는 아니엇다. 분명 그때에 그의 가슴은 새색시의 것모양으로 울렁거렷다. 다만 임준상은 불타듯열렬하게되지못하는 섬흠이 잇섯다. 그것은 밝은 이성의 힘때문에도 아니오 구든 도덕적의 지력때문에도 아니엇다. 도리혀 그는 외모와가티 명철한 사람도 아니오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가튼 덕행가도 아니엇다. 오히려 그는 향락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엇다. 말이나행동이나 다 번드르하게 저룹잇고 세상을 위하는 지사 갓지마는 기실은 아모 신념도 결심도 업섯다. 그는 무엇이 올흔 일인지를 남의 말을 듯거나 책을보면 얼는 알아듯는다 알아듯는 동시에 남에게 그것을 전하고 주장하는 변재와 일시적인 열도잇다. 그러나 그는 그 「올흠」이란것을 꽉 붓들어서 제 생명에다가 못박아 부치지를 못한다. 그는 올흔것을 잘 알면서 하나도 올흔일을 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조선의 현대에서 흔히 보는 성격중에 하나엿다.

준상은 열정가로 자임하고 잇다. 아직세상 경험이 적은 젊은 친구들도 그를 열정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양철남비와 가튼 열정이어서 얼는 끌어나지마는 곳 식어버리는, 그러한 열정이엇다.

이 세 가지 특색—죄악을 짓기에는 약하고, 무엇이나 얼른 알아듯는 이해력과 제가 아는것을 남에게 말하는 발표력이 잇고,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열정을 바칠수 잇는 이 세가지가 그로하여곰 동무들중에 존경을 밧게 하는이유가 되엇다.

준상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혜련을 이해하엿고 또 사랑하엿다. 준상은 제가 외모로나 정신으로나 세상에 뛰어난 청년으로 스스로 밋기때문에 제가 주는 사랑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혜련에게 무조건으로 환영바들것이라고 미덧던것이다. 그러다가 혜련에게 두번째나 쌀쌀한대접을 바들 때에 준상은 아프게 자존심을 상하지아니할수 업섯고 또 제가 저를 미덧던 데에 큰타격이 되지아니할수 업섯다.

「이, 사랑은 실패인가? 내가인제는「실련의 슬픔을 당할 차례인가」

이러케 생각하면서 준상은 고개를 숙우리고 걸어갓다.

經濟解說
"米棉收穫量"
發表內容을檢味

米棉收穫豫想의 第一回發表를 보고 東京大阪의 綿絲市勢가 暴騰하엿다 그런데 이米棉은 米國에서 産出되는 棉花를 말하야 印度棉, 中國棉等보다 品質이 좃코 또 産出額이 相當한 때문으로 米棉이 世界棉花市場을 左右하고잇는터이다 그러고 日本에잇서서 每年相當한 數量의 米棉輸入을 한다 即昨年度棉花輸入은 七億一千四百萬圓에 達하다 이런 價七千百萬圓에 그中米棉은 三만큼 米棉事情은 日本棉花市勢는 勿論 이棉花를 原料로 하는 綿絲市勢의 高低를 나타내이는 材料가 되다 그러 이번에 發表된 米棉收穫 되야 綿絲市勢를 暴騰케하엿 第一回發表의 內容은 어떠케 되엿는가.

×

最近 今年度米棉의 收穫은 一千二百萬俵를 너머슬것이라고 民間에서 豫想되고 七月의 私設公報도 한때는 十二個所까지 市勢가 堅調하엿다 即 七月八日米國農務省이 同月一日에 調査한 米棉作付段別을 三千六十二萬一千에카로 發表하야 市場은 豫想以上으로 적은 段別公報에 놀내는 때문이다 이 段別로 豫想되엇든 新棉一千百二十三萬俵乃至一千百六十四萬俵에 達할것이라고하엿다 그런데 이뒤 一個月間의 旱魃의 影響이 甚하고잇

에 지난七月八日發表의 其段別公報는 意外의大增收를 豫想하고 또 그뒤를 이어서 民間에잇서서 다음과가티 一千二百萬俵以上을 豫想하는사람이 만케되엇다。(以下單位千俵)

共販組合	一二、八五四
슈와파치	一二、八三一
크레만、카치쓰	一二、一二五
베네트	一一、六六一
메최일들	一一、九五一
포시크	一二、五一一
자넬、오브、콤마스	一二、五一二
米國棉花消費	一二、四五九
뉴욕棉取會員	一二、一一八

×

이와가티 新棉收穫一千二百萬俵臺는 거의 市場의 常識化하고 公報가 一千二百二十五萬俵程度이면 現在의 뉴욕市勢는 이미 反映되야 發表할 公報의 影響이 別로 업슬것이라고 하엿다 그러나 七月의 發表當時에 比하야 그뒤 産地의 天候作況이 好轉되엇다 떠들든 旱魃은 實際에 잇서서 被害를 주것은 小麥과 玉蜀黍等의主要農産物인 北西部地方이 主로 棉花産地에는 最近으로 크라호마에 新地가 乾燥하다는말이 잇섯슬뿐으로 그밧게의 産地에 잇서서는 最大한 米棉産地인 텍사쓰의 作況이 매우 良好하다고 할용비롯하야 大體天候, 作況이 모두 順調로 進行되엇다。

×

一面으로 新棉의收穫이 一千二百萬俵臺에 達하리라는것도 大勢的으로보아서 稀罕한것도 다시疑心할餘地가 업섯다 뉴-욕의 棉花取引所에서는 지난八月一日現在의 世界米棉持越高를 六百九十九萬五千俵로 發表하엿다 그러나 뉴욕棉花取引所에서는 七百十萬六千

俵로 發表하엿는데 어떠튼 그 持越高가 昨年同期에 比하야 三百萬俵가량의 減少를 示한것은 立證되엇다 그런데 世界의 棉花消費도 大體增加하며 또 將來 市勢를 混亂케한 米國政府의 市場關與는 昨年以來 一段落을 告한모양이므로 米棉前途는 반듯이 悲觀할것이 아니라는 觀測도 잇섯다。

×

그럿치안 米國農務省으로부터 八月一日調査한 第一回收穫豫想을 發表한바 그數字가 一千二百四十八萬一千俵로 그동안의 一般民間豫想보다 顯著한 增加를 보엿다 이와가튼 米棉收穫豫想을 보고 棉花三品, 綿絲市勢까지 暴騰을 보게된것이 그大體의 經過이다

南棉擴充計畫 "六億斤의增産"
昭和十二年度以後로부터
第一期五十萬町步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南棉의大擴充計畫을 樹立하려고 愼重硏究中이든바 드듸어 昭和十二年度以後 다음과가튼 尨大한增産計畫을세우고 于先第一期計畫인五十萬町步六億萬斤增産을 明年度부터 實行하기로되엇는데 擴充計畫의 大要는如左하다

一、現行三十五萬町步 四億二千萬斤計畫을 栽培面積七十萬町步, 段當收量百五十斤, 總生産目標十億五十萬斤을 理想目標로 十二年度以後 二十個年間에 實現식히다

一、이第一期로서 現計畫의三十萬町步 四億二千萬斤을 五十萬町步六億斤으로 向上식힌다

一、그指導目標는 今後肥培管理의 徹底合理化를 圖하야 段當收量의增産에 主眼點을 置하고 計畫의進展을圖한다 그런데 棉作의 擴充에 伴한耕地對策으로서는 水利不安全畓의 地目轉換에依하야 旱災根本策과 一石二鳥의 效果를 어들수잇는 同時에 麥間作을 勵行하야 食糧不安을 根絶식힐方針이라한다

棉花軟調
朝鮮棉도影響

米棉의 增收豫想에 依하야 棉花, 三品共히 軟調를 示한結果 朝鮮의 棉花는 今年度의 天候異變으로 相當히 減收되는우에 價格上에도 波及을 不免하게되리라한다 그러나 九、十의 兩年은 特히 豊作이어서 實棉百斤平均 十七錢臺이엇는데 七、八年時代는 十錢前後의 市勢를 持續하얏스므로 이에比較하면 그다지 큰 打擊이 아니다 大體共販價는 十五錢가량을 豫想한다고 한다

米輸送도問題
木浦元拂이말성

六月末京城에서開催한 朝鮮米輸送會議에서 運賃의元、着拂問題에對하야 木浦側을除하고 全部着拂로決定、木浦만은元拂대로 今日에至하얏는데 數日前木浦積、神戶着朝鮮米輸送에 依然神戶受荷主로부터 着拂變更을 主張하야 右荷物의 引取를 拒否하얏슴으로 右荷物이 紛爭을惹起하얏는바 右荷物이라한다

만은 元拂로 完了하얏스나 今後日本內地側은 元拂로 依然服치안코 意外로 强硬態度에 出하얏슴으로 木浦의 例外도 結局 他港同樣着拂로 變更되리라 한다

客月簡保成績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七月中 契約高는 日本內地人四千五百三十一件 保險金百七萬八百二十八圓五十錢, 朝鮮人一萬六千四百七十七件, 合計二萬千八件의四百四十一萬六千六百九十九圓十錢이라고

白金躍騰·飛騰
昭和八年來新高價

海外高에 刺戟되어 騰勢이던白金은 旣報某側에서行한 購買入札結果週初品物을納入한바 東京市中在荷拂底로 八日의東京市中市勢는 實價十七圓丁 買價十五圓乃至十五圓五十錢으로 前日에比하야 또五十錢의 暴騰을演하야 昭和八年一月以來의 新高價를示現하얏는바 京城市中白金價는 賣十七圓 買十五圓五十錢으로 東京과 同價이다

朝鮮煉炭
製造計畫
十萬噸의豫定

朝鮮煉炭會社의 來需要期에對한 煉炭製造計畫은 來十七日定時總會에 附議코저 立案을急히 하고잇는데 大體 如左히 成案을 得하얏다 한다

鐵道局納入	三萬噸
一般供給用	七萬噸
計	十萬噸

으로 內容은 角形三萬噸 마세쿠七萬噸이다 一方 販賣價格은 原料炭의 仕入價가 前年과大差

今年四半期間의 工場勞賃低落
日本內地人男工만昻高

總督府調査 今年第一期(一一三月)의 全朝鮮工場賃銀調査는 如左하다 (調査工場은 五十人以上 三百十一工場 業種四十五 勞働者數九萬四千百三十二人이다)

		今年第一期	前期	前年同期
成年工				
日本內地人	男	一七七	一五三	一七一
	女	一〇六	一三一	九九
朝鮮人	男	八六	八二	八二
	女	四四	四八	四六
中國人	男	八一	八五	八二
幼年工				
日本內地人	男	六七	六九	五八
	女	八二	—	六七
朝鮮人	男	四九	四六	三三
	女	三〇	三〇	三二
中國人	男	三七	三九	四二

成年工은 日本內地人男工만 賃銀이昻騰되고 其他는 低下되엇스며 幼年工은 日本內地人男女 朝鮮人男工이 昻騰되엇다

米移出增加
粟輸入도增大
八月上旬의旬報

七月中의 朝鮮米輸移出은 産地高로 不振裡에 推移되엇스나 八月에 入한以來 實行이조아 上旬移出은 十一萬九千石으로 前年의 七萬五千石에 對하야 四萬四千餘石의 移出增이오 輸移出累計도 八百二十八萬二千石으로 八百三十萬石에 接近하얏다 米의移入은 減退되고 粟輸入은增大傾向이엇다

(單位玄米換算石)

▲米輸移出高

	今年	前年
八月上旬	一一九、〇〇〇	七五、〇〇〇
累計	八、二八二、〇〇〇	八、三〇一、〇〇〇

▲米輸移入高

	今年	前年
八月上旬	一、〇〇〇	四、〇〇〇
累計	九〇、〇〇〇	二〇〇、〇〇〇

▲粟輸移入高

	今年	前年
八月上旬	四〇、〇〇〇	三〇、〇〇〇
累計	一、〇〇〇、〇〇〇	九〇〇、〇〇〇

「鮮滿拓殖會社」
創立大綱決定

【鮮滿拓殖株式會社】創立은 十日創立準備委員會를 開催하고 今井田前總監이 委員長으로서 諸創立事務를 統制하고 十一日은 午前九時三十分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創立委員會를開催하고 今井田委員長以下 總督府關係委員, 加藤、有賀等 朝鮮內民間委員, 滿洲國關係者가 出席하야 同社創立의定款 株式割當 其他事項을附議하고 同社創立의大綱을 正式으로決定하얏는바 十七日까지에 拂込을終了하야 三十一日創立總會를 開催키로되엇다

株式은不公募

鮮滿拓殖의 株式配定은 十一日의 創立委員會에서 다음과가티 決定하고 東拓、滿鐵이 各十萬株를 引受하야 過半數를 所有하엿는데 그밧게二十萬株의 引受人은 다음과 갓다

朝鮮銀行、朝鮮殖産銀行、三井、三菱、住友、第一銀行、毛田保營、生保協會、漢城銀行、閔大植、河駿錫、賀田直治、多田榮吉、方義錫、朴榮喆、閔奎植、韓相龍、金季洙、崔昌學

市場公募를 안하고 十七日까지 拂込을完了할 豫定이라고한다

棉花共販協議

十一年度棉花共販과 棉作主任官協議會議는 八月二十一日부터 二十五日까지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열기로 決定하고 繼續하야 二十六日로부터 木浦에서 標準棉花査定會議를 하기로되바 棉花運賃引上諸費用 低減等共販에 相

日鐵의增産計畫
朝鮮設備도充實

【東京電話同盟】日本製鐵會社의 銑鐵五百五十萬그람噸 鋼材總年産額五百萬그람噸實現을 目標로한 大增産計畫은 今春에 至하야 再次 그設備完成期間을 短縮하야 今年四月부터 向後五個年間 即 昭和十六年三月로써 全設備의 建設을 完了하기로 方針을 確定하야 明年四月부터 工事에 着手할 豫定으로 第三次擴張案에關하야 技術部와 計畫委員會가 中心으로여러가지 調査硏究를 急히 行하는中인데 有望地도 漸次進捗되어 느저도 今月로서 原案의 骨格도 決定되어 大體實地調査 行하고 正式計畫을 決定하야 委員會와 重役會의 決定을 經하야 商工省局에 計畫을 申請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第三次

三次、第四次擴張案의 中心을占하고잇는것은 銑鐵增産計畫인데 銑鐵年生産目標總額은 五百五十萬그람噸인데 그中所謂 아우트사이더 完成豫定의 生産設備를 除하고 日鐵自身이 完成하려는 銑鐵 年生産設備能力全體는 四百七十萬 그람噸 이라고 豫定되고잇다 이미 作業中 或은 第一次、第二次擴張計畫의 建設工事着手中의 年産能力三百三十萬그람噸을 除한 日鐵第三次、第四次擴張計畫은 第一次計畫決定에 依한 銑鐵增과 그附帶設備의 新增産計畫을 中心으로한것으로 그建設豫定地와 各種製品配定等에關

해서는 勿論 아직 最後的決定이되지안엇스나 目下의 形勢로는 大體 年産五百그람噸, 또七百그람噸을 合하야 各六、七基를 建設할 模樣인데 그建設豫定地에 關해서는 大體

一、旣存各地의 作業場八幡及輪西의 二個所를 候補地로하고
一、全然 新地를 物色新設하야 (가)朝鮮淸津(三菱茂山의鐵鑛開發을 前提로하야)
(나)大阪府下의 尼崎 或은 堺附近
(다)、北海道石狩川下口 石狩附近等이 現在로는 有力候補地가 되어잇는 模樣이다

銀行株現物仲値表

	時價	一株拂込	最近配當	決算期月	資本金千圓
朝鮮銀行	×七八·八〇	一〇〇·〇	·一四	六·十二	四〇·〇〇〇
同新	×二〇·四〇	二五·〇	·一四	六·十二	
朝鮮殖産銀行	×七四·五〇	五〇·〇	·一〇	六·十二	三〇·〇〇〇
同新	×五六·五〇	三七·五	·一〇	六·十二	
朝鮮貯蓄銀行	三六·七〇	二五·〇	·〇八	六·十二	五·〇〇〇
朝鮮商業銀行	二四·〇〇	五〇·〇	·〇六	六·十二	九·九七五
同一新	一六·〇〇	三七·五	·〇六	六·十二	
同二新	八·五〇	二〇·〇	·〇六	六·十二	
同三新	五·六〇	一二·五	·〇六	六·十二	
漢城銀行	一六·〇〇	五〇·〇	·〇六	六·十二	三·〇〇〇
同新	七·〇〇	一二·五	·〇六	六·十二	
東一銀行	二三·六〇	五〇·〇	·〇六	六·十二	四·〇〇〇
同一新	一四·四〇	三七·五	·〇六	六·十二	
同二新	九·五〇	二五·〇	·〇六	六·十二	
慶尙合同銀行	二〇·〇〇	五〇·〇	·〇六	六·十二	三·三〇〇
同一新	一四·〇〇	三七·五	·〇六	六·十二	
同二新	六·七〇	一七·五	·〇六	六·十二	
海東銀行	一〇·〇〇	二〇·〇	·〇四	六·十二	二·〇〇〇
湖南銀行	二七·〇〇	三七·五	·〇七	六·十二	二·〇〇〇
同新	一九·〇〇	二五·〇	·〇七	六·十二	
大邱商工銀行	九·五〇	一七·五	越	六·十二	一·〇〇〇

(備考) ×印은 配當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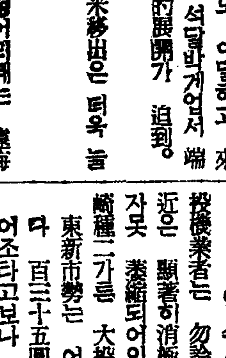
經濟界消息

○朝鮮米穀倉庫會社重役會 十三日 定期重役會를 開하고 第二回拂込와 其他 諸般事項을 協議한다 그런데 一圓二十錢의 配當은 從前대로 하기로 되엇다

○大阪商船朝鮮航路再開 大阪商船에서는 四月中旬以來 休航中이든 朝鮮航路에 就航할 豫定인데 日滿經濟聯絡을 圖하리라고

○日滿實業協會則改正 日滿實業協會에서는 來九月十五日、十六日 新京에서 開催되는 總會에서 會則을 改正하고 陣容을 一新하리라는데 朝鮮支部에서도 새로히 規則을 創立하고 朝鮮經濟界에 貢獻코저 企圖中인바 規則改正內容은 各支部膨脹에 伴하야 從來는 中央集權主義이든것을 地方分權主義로 變更하고 各地方特殊事情에 應하야 目的達成에 努力하리라한다 新京의 總會에는 朝鮮側에서 目下 十二名이 出席을 申込하얏다고

○京城見本市 京城商工聯合會와 府實商議聯盟會共同主催下에 來九月中旬京城公會堂에서 見本市를 開催할터인데 來十四日午後二時부터 幹部會를 開하고 實行方法을 協議하리라고



今年米豫年度도 이달하고 來月, 또來月 석달바게업서 端境期의 本格的展開가 迫到。

○그래서 朝鮮米移出은 더욱 늘어갈뿐!

○물이차다고 젓어리떼는 遠海에만 빙빙돌고보니 群小漁民은 속만 탈뿐

○때는져 이지음에 東海岸一帶에 來游가잇다고하나 이것도 市着勢의 반찬거리나 되지안흘가

○朝鮮棉作은 今年凶作豫想이라고

○最近數年來의 豊作과 好市勢로 今年은 作付面積三萬町步가 增加한해임으로 農家의打擊은 이곳에도……

商況 【十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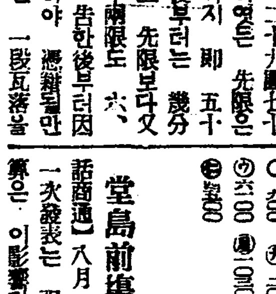
株式 突込警戒 底堅

前場底堅 今前場은東新百二十二圓七十錢 日産八圓十錢 鐘十錢 日産七十八圓十錢 大新六十六圓九十錢까지 彈하얏스나 底堅히 東新百五十九圓丁、朝新三十一圓丁寄後 東新二圓五十錢, 日産七圓

各大引

▲東新 一三四(寄) 三三 三五 三八
○ 八 八〇 六〇 三三(引)
▲日産 八六〇(寄) 一〇 一〇 一〇 三〇
六 一〇 八〇(引)

後場保合 後場은 保合이엇스니 東新百二十三圓三十錢大 新六十七圓三十錢 鐘新百五十九 圓六十錢 日産七十八圓三十錢日 産二十五圓六十錢 朝新三十一圓 十錢 日魯七十圓丁 拓新七十圓 丁에各大引



株……東京東新을 百二十三圓三十錢까지 팔어보앗스나 신통치안어 三圓二十錢에 反撥前引▲環境이라던가 夏枯期의關係로 大變動을바라는사람이 無理한소리이지만 ▲未底入되지 아니하니 이제 二圓안팟의 市況으로 起落치 아닐것이오……

米……바로天井不知의 氣勢를보하든 阪地當中兩限도昨今에入하야는多少伸悩 ▲突하면 旣히 滿腹된 田中貞도이제부터 警戒自重하는모양? ▲아즉六月中의 高價를 上廻하지못하고 最高公定價도 아즉距離가五十丁이나남어잇슴으로 買進할 餘地가잇스니 그러나大體買方은잘아리利食할만 ▲그러치만渡米가容易치 못하는境遇에는 最高公定價格이무슨關係가잇스랴 ▲果然境遇에 依하야 公定價格은 拮抗하고 最高公定價格은 어떠할지 示할지누라

投機業者消極
"알수업다할뿐"

投機業者는 勿論事業家까지도最近은 顯著히 消極化하야 意氣가 자못 萎縮되어잇는바 東京의山崎種二가튼 大投機業者도 東新市勢는 어떠케될지알수업다 百三十五圓까지는 反騰되어조다고보나 위가겨우 十圓쯤이라면 살마음이안난다 市場에 東新이업서서는 寂寞한 터이니 亦是東新을 愛護하기는하여야겟스나……

云云하야 强弱的自信이업서 傍觀하고 잇다고

大勢買論
鐵材는買機的

市場은 依然部分的으로 弱含인데 主力의 價格은 不勢로 遊因하고 一部以外의 各種材料로서 無活潑인바 材料的 因素는 國際的孤立, 實業의惡化, 增稅 統制, 取引所制度改革等方面으로부터오는 社會的不安을 云云하야 事態에잇서 一 見樂觀할수가 잇다

1、國際的孤立은 一事實이라고 目前的으로 株式市場을 惡化케 할程度의 材料가 아니오

2、實業惡化도 소리는 크나 實際는 生長되는中으로 何等不安할것이업고 將來 政策이 時宜에 適合하게 改善하면 再次 前年가튼 伸力을 發할것이 無疑인것

3、增稅、統制、國營等은 이미 材料로서 壓力이 업스며

4、某方面으로부터의 不安云云은 一掃의 떼마로 化하얏다。要컨대 株式市場에잇서 悲觀材料는 具體的現實的으로서 低金利政策確立으로 金利低落일뿐아니라 어떠한 角材로서든지 金利가反騰될事情이업는點을생각할때 弱氣材料는 大體人爲的이오 또一時的恐怖人氣로利用하는데마 만흔 것에 關하니 市場은 今後波瀾이 거듭되드래도 波瀾마다 一步一步上進할 運命에잇다고 大勢買論을 主唱하는者잇서다

實物前場取引

▲日産 八一〇(寄)
▲帝國火藥 一八七
▲鐘紡新 一四七
▲東拓 一二〇
▲富士木材 一三
▲片倉製絲 三〇
▲朝鮮鐵道 四〇
▲朝鮮石油 一〇
(合計 一八〇株)

實物의 株는 時勢의 刺戟을 바다 各値 얼마만의 品도 없이 本年末 ... [illegible]

今日財界 (十一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物 三三·三〇 比前日 下〇·〇三
大阪期米 先物 三三·五〇 下〇·二〇
◆三等米 (仁川) 一石 三二·〇〇
正米 (仁川) 二等 三三·〇〇
◆京城市中金融 (單位厘)
一厘 一分貸 三錢

◆株 (單位圓)
朝鮮 東新 一三三·三〇
日産 大新 六七·三〇
◆棉花 (先物當限 單位圓)
大阪綿絲 二六六·〇〇
大阪棉花 ... [illegible]
大阪人絹 ... [illegible]
大阪砂糖 ... [illegible]
ゴム (F·A·Q) ...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公債은 赤字公債의發行이 十月의 豫想이든것이 九月初로 繰上되어 其의 强氣의 打上을 期待키 어려울 行懸의 引上을 期待키 難하고 內債는 三分半이 十錢乃至二十錢低를 비롯하야 五分利其他五十錢低이나마 米貨六分半一圓五分利半七十五錢의 反落이엇다

大阪國債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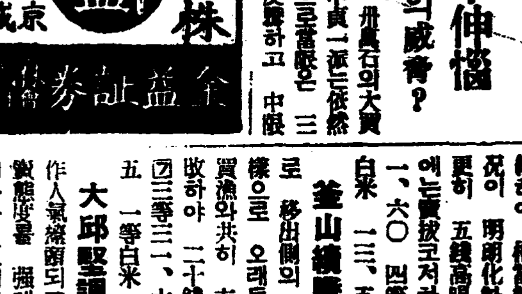
▲甲五分利 一〇一、一〇 ▲二回四分利 一九八、四〇
▲甲五分利 一〇一、二五 ▲第三五分 一〇一、一〇 ▲二三年 不申 ▲二六年 一〇一、一〇 ▲一回四分 一〇一、五三 ▲二回四分 一〇一、五三 ▲佛貨四分 一九八、三〇 ▲米貨六分 四〇四、五〇

阪地當中仲惱
公定價의威脅?

示하면 今後天氣如何에 依하야 大勢를左右하다할수잇스나 當中限은 在來의事情如何에依하야 그러데 先限은 日本內地는 아즉大熱이잇서 이오 朝鮮도 渾然이 平氣의 一般的으로 不安이 업지아니하나 天氣의 如何에 依하야 그러고 發의 事情으로는 朝鮮도 比較的在來가 漸進하리라 期近의 狀態이 只在하니 한 觀察이 不安 漸進하리라 日本內地의 市勢가 如何히 反亂할지 아직 豫測키難하다 그럼으로 今後兩地 當中限의 市勢가 어떠케 될지 아직 觀測키難하다

東京市場을 主導하야 井貞右의大買物을 把握한 東京市場 田中貞一派는 依然强硬하야 當限은 三十四圓卅銭臺를 示한모양이다 그러나 中限 四圓卅錢臺로 反落하고

은 三十四圓四十錢臺로 昻騰하야 去六月에 現出한 卅四圓五十九錢의 高價를 거의 恢復하려는 形勢를 보이고잇다 그러나 此處에서 多少伸惱의感이 업지아니한 買方으로서도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 此限만치 警戒自重하는 感이 업지아니하고 一方賣方으로서는 此限을 이미 防戰不急 할것으로 實을 업에가 何如間 前日 의 高價를 機로하야 三十四圓五十九錢의 高價를 演出할 當時의 米界事情은 又復一高를 示할 强材가 업지안흘수잇스나 그러나 堂島米價로 換算한 最高公定米價는 三十五圓十二錢에 거의肉迫된 市勢이 어느만치 結局買方의 警戒와 共히 反落하고만 것이 업슬것이 六圓의 天井을 容易히 突破하지는 못할것이라고 觀測된다 果如何?



米期 高價利喰 不押

前場少弛 昨後場阪地三十二圓四十錢止와共히 三十圓二十一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三十二圓四十八錢이八丁反高를 보히고 三十圓二十九錢인八丁高로 場을始한後阪地稍漸低弛로 結局三十二圓十九錢에 止하야 初付價를 最高로 場을止하엿다

後場下押 後場은 三十圓十二錢에 五丁低로 始場後 十五、六錢에 相交이다가 十四錢에 止場하다

商勢幾分頭重
利喰의 關係?

新甫發會當日에 二十九圓七十九錢의 低價를 示하엿든 先限은 三十一圓二十九錢까지 卽 五十丁의 反高를 示한後부터는 幾分伸悩의 觀을 뵈히고 先限보다 又一層强硬하든 當中兩限도 六、七十丁의 反撥을 보한後부터因 而頭重의 感을 뵈히야 憑籍할만 한 材料만 잇다하면 一段瓦落을

朝取期米取調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底堅

【大阪電話商通】八月一日 現在殘存米第一次發表는 强氣的이오 今朝淸算은 이影響과受米好賣行을 移

各地正米

京城續伸 降雨繼續과 各地豫想收穫豫想을 惹起하야 高價를 示現하고 賣方은 浦喉目己 中東樓 賣方 朝鮮市場 ... [illegible]

仁川强堅 日本內地定期의 高唱이엇다 地方市場 作地도 明朗化한 接續으로 商況이 明朗하고 五錢高唱이 고 ◎三等 三一、六〇 四等 三一、三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釜山續騰 日本內地實行이 續하야 相當한 賣行이잇고 市勢는 更히 五錢高唱이라 ◎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三、五〇

大邱堅調 天候不良으로 不作人氣의 高調되고 期米强調인 만큼 賣態度를 强케하는 一方取引 不振이나마 更히 市勢十錢引縮이엇다 ◎三等三一、六五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群山保合 日本內地定期側의 實行이 乏한데다가 人氣는 不拂이나 實物拂底로 市勢底强保合이엇다 ◎三等三一圓九〇錢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三〇

木浦同調 天候는恢復되엇스나 依然持米側의賣氣가 窺親치안코 商談이 極히 不振이나마 市勢는 少强保合이엇다 ◎三等三一圓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圓

株式 十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取組高◆

[illegible]

期米 十一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取組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値◆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金融 十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一日

◆京城絹布◆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京城油價◆

[illegible]

◆京城糟粕價◆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紐育外棉 ◆利物浦棉◆

[illegible]